朝鮮日報 夕刊 十四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株式會社朝鮮日報社

首相演說中에서 右翼化誤解一掃

日獨協定은팟쇼樣式採擇한다는疑念一掃

外交問題論難必至로

【東京電話同盟】再開議會에잇서 貴衆兩院各派가 外交問題를 論難할것은 必至의情勢인데 日獨防共協定을드러 政府가 팟쇼國과提携하야 日本의政治에 팟쇼樣式을 採擇하기를 企圖하는것이라고 誤解하고 念慮하는傾向도잇슴으로 政府도 이것이國民一般에與할 影響을 크게憂慮하고 議會劈頭에잇서 廣田首相의一般施政演說에잇서서는 特히이點을드러 日獨防共協定의 地位를 明白히하야 防共協定締結을가지고 日本政府가 꼼인테른에對한 共同防衛 同時에 팟쇼主義에 向하야 共同進出을 期하는것이라고 보는것은 큰誤解이다 그리고 防共協定結果로日本의內政이 팟쇼化하리라고 생각하는것은 甚한曲解라고 强調하야 疑念一掃를 期하기로되엿다 今議會에 잇서서는 政黨의 擁護回復議會政治更生의 熱意가 旺盛한 此際 政府의 이方針은 이와對照하야注目된다

電力法案의提案理由

【東京電話同盟】遞信省은 電力國營案을 再開議會劈頭에 提出하기로 方針을 決定한데 基하야 特히 提案理由說明을 愼重히 起草하야 議會의論戰에 答하려하고잇다 說明의大要는 左와如히 豐富低廉한 電力을 供給할것을 第一義로하고 國防及準戰時體制問題等은 直接表明하지안흘 方針이다 卽提案理由書에잇서 電力은 産業政策、社會政策及 文化生活上에잇서 重要性을强調하고

一、豐富한 電力을低廉하고 또圓滿히 供給할것
二、水主火從의 原則確立水力資源의 確保와燃料節約에資할것
三、以上의 具體的方策을可及的速히 具現할것

이 本案의提出理由라는 旨를 述한다음이 計數析하야 料金低下問題 化學工業助長問題 農村工業化問題及 家庭工業의 普及에 依한 工業分散政策等에 對하야 說明을加할터이다

蘇聯次年度豫算 中執委員會通過

國防豫算은全豫算의三割强

總額九百七十一億留

【莫斯科十三日發同盟】蘇聯邦中央執行委員會는 十三日會議에서 內務人民委員會이提出한 一九三七年度蘇聯邦豫算案을 全會一致로承認하엿다 新豫算은歲入總額九百八十億六千九百五十萬留歲出總額은九百七十一億一千九百五十萬留로 一九三六年度에比하면 歲入歲出을 通하야 約十八%의增加를示하고잇다

一九三七年度豫算의 基本方針은 國民經濟의發展 勤勞大衆의文化的物質的水準向上及國防能力强化의 三項인데 特히國防豫算은 全豫算의三割强二百一億二百萬留로一九三六年度의 百四十九億留에 比하야三割五分七厘의膨脹을示하고잇다 國防豫算의 急激한增加는 蘇聯赤軍의自然的發展에伴하는 以外 東西國境戰線의 非常時를 反映하는것으로國防費의 使途項目中 主要한것은 左와如하다

一、兵員의 擴充及이에 伴하는 給與의 增加
一、科學兵器의採用 其他 裝備의 近代的技術改善
一、兵舍將校宿舍兵隊用食糧增加改善
一、國防軍의 文化的訓練施行

獨新外交政策表面化하면 大戰의危機는爲先解消

【伯林十四日發同盟】히틀러總統은 今年度外交團接近을 機會로獨逸政府에 平和的意圖를 表明하야 모록코植民地에 對하여도 不干涉을確約하엿는데 爾後 필링空相 리펜트롭프大使 經濟相솨하트博士間에 今後外交政策에 對하야 愼重審議를 加하고잇다고傳한다 半官機關紙D·N·B는 十三日午後經濟相솨하트博士는近近日里에赴한다는 風聞을 否定하엿는데 消息通의觀測에 依하면 要컨댄出發을 一時延期한데不過하고 空相필링氏가 羅馬로부터 歸還한報告에 基하야 다시 妥協한後 何等 具體的成案을 發見할수잇는 段階에 到達하면 마침내 巴里에 赴하야 佛國政府와 直接交涉에 當하리라고 觀測된다 이미 폰세大使는 히틀러總統의 要望을 容認하야 本國政府에 對하야 佛西兩國間 國境封鎖를 進言할를 公約하엿다고하는데 十七日에는 코트네大佐를 首班으로한英國空軍視察團이 伯林에 到着할豫定인바 獨逸政府는 國際的孤立으로부터 脫却하야 漸次歐洲各國政府와 協調하지 안흘가 豫想된다 리펜트롭프大使는外交展開의 重大時期에 際會하야 任地倫敦에 歸還하기를 延期하고 자조 히틀러總統과協議하고 잇는데 植民地 再分割에 對하여도 英佛兩國政府의 好意的 見地에 鑑하야 平和的外交手段으로 年來의 國防的要望을 貫徹할 方針이라고 말한다 獨逸政府가 宿願하는 植民地는 葡領 앙골라 佛領카메룬 一部 白領콩고等이라고 傳한다

필링空相은 以上의 植民地要求에對하여도 伊政府의意向을 打診하야 支持를 要望하게될터이다 따라獨政府의新外交政策이表面化하면 필링空相은 歸還할터인데 伯林外交界는 모록코問題의 一段落에對하야 西班牙內亂에 對하여도 結局 叛軍의勝利를 어든것으로 歐洲大戰의危機는 漸次解消되리라고 樂觀的見解가 强하다

獨空相伊太利訪問 對西共同策協議

地中海現狀維持에關한英伊協定內容打診

兩國間提携强化企圖

【伯林十三日發同盟】獨逸空相필링將軍은 夫人同伴으로 十三日伯林을 出發하야 羅馬로 向하엿다 同將軍夫妻는 十三日午後十時四十分 羅馬에 到着할豫定인데 十四日은 베네치아宮에서 뭇솔리니首相을 訪問하고 會見할터이다 필링空相의 伊太利旅行은 靜養하기爲함이라고하나實은西班牙內亂을 中心으로한 獨伊의 共同政策에 對하야 伊太利政府首腦部와 意見交換을 遂하리라고 解釋된다

【羅馬十三日發同盟】히틀러總統의 股肱 事實上獨逸의總理 필링空相은 十三日羅馬에 到着하야一週間滯在하면서 뭇솔리니首相 챠노外相以下 伊太利政府首腦와會見할터이다 필링空相의 羅馬訪問은 昨年十月챠노 外相의 伯林訪問에 答禮키爲한 單純한獨伊交驩外에 特別한 重要使命을帶한것이라고 解釋된다 特히필링空相은 地中海現狀維持에 關한 英伊協定成立 西班牙內亂不干涉에關한 英佛提携後에잇서獨伊兩國政府의 共同政策을 檢討하고 再調整하기를 目的하는것이라고傳하는데 이點에對하야 羅馬外交界의觀測을 綜合하면 左와如하다

一、필링空相은 英伊地中海協定締結事情에關한 伊太利政府의說明을 求하고 또所謂地中海現狀維持에關한 뭇솔리니首相의眞意를 打診할
一、一方 伊太利政府는 西班牙叛軍의勝利를 確信하고 戰局終了後 獨逸政府의叛軍政府에 對한方針을質問할
一、以上雙方의政策을闡明한後西班牙問題를 中心으로 兩國政府의提携를圖할

(寫眞은 필링氏)

國際政局打開次 四大國會議提唱

伊機關紙가十三日紙上에서

【羅馬十三日發同盟】히틀러總統은 伯林駐剳佛國大使폰세氏에게 모록코問題에 關하야 公約한結果이 歐洲政局의危機는 一時緩和되게 되엿는데 伊太利政府機關紙는 十三日紙上에 四國會議를 提唱하야 左와如히 述하엿다

獨逸經濟相솨하트博士는 近近 巴里를 訪問하고 佛國政府와 會見할터인데 右時期에 英國政府도 參加하기를 希望하지안는다 會議의範圍를 擴大하야 伊太利政府도 招請하게되면 歐洲의四大國이 國際政局打開策에 對하야 檢討할수잇슬것이다

獨經濟相솨하트博士 巴里行을中止!

通商專門家商議는繼續

【伯林十三日發同盟】獨逸經濟相솨하트博士는 十六日伯林을떠나 巴里에赴하야 萬國博覽會獨逸館定礎式에 臨하기로豫定이엿스나 多忙하기때문에 中止하기로 決定하엿다는뜻을 十三日 巴里에通告하엿다

【伯林十三日發同盟】獨佛兩國政府는 通商條約을 締結키爲하야 目下 伯林에서 兩國專門家間에 豫備的商議를 行하고잇는데 솨하트博士가 巴里行을 中止한結果 依然交涉은 伯林에서 繼續하기로되엇다 右에 對하야 獨逸政府當局은 十三日午後左와如히 說明하엿다

獨佛兩國의 通商條約에關한交涉은 伯林에서 兩國關係者專門家에 依하야繼續될터이다

獨空相羅馬거쳐 廿一日西班牙向發

【羅馬十三日發同盟】獨逸空相필링將軍은 伊太利政府首腦와 會見을 遂한後 二十一日 羅馬를 出發하야 나폴리經由로 西班牙에 向할意向이라고한다

西安事變後의 共産軍體勢

【洛陽十三日發同盟】西安事變後共産軍의活動은 猛烈을더하게되엿는데 當地에到着한情報에依하면 共産軍의 在陝勢는 大體로 左와如하다

一、徐向前軍의一部는 陝西省西北境綏遠에서 綏遠南部의 鄂托克旗方面으로 他의一部는 陝西省北境靖木方面으로移動中
一、固原方面에잇는 董振及賀龍部隊는 彭德懷部隊와 合流하야 固原으로부터 東進中인데 慶陽附近에 到着하엿다
一、蘭州의北北東二百五十粁의涼州方面의朱德、徐海東軍은 市旺方面으로進出中

이에對한 中央軍側의 陣容은淸寧華縣에 十萬이 駐屯하고잇고 胡宗南軍은 主로甘肅、寧夏省境에잇스나 共匪國에共産軍의 包圍를밧고잇다 그리고毛澤東部隊는甘、靑省境에잇고 西安方面에 向한 胡毛兩軍兵力은 合計三、四萬이라고 稱한다 이外에中央軍은 陝西、甘肅方面에 出動하기爲하야 準備中에잇는軍隊가二十萬을算하고잇다

朝野歡迎裡에 汪精衛氏歸滬

外遊十一個月만에歸國

【上海十四日發同盟】西安事變勃發로 國民政府로부터 至急歸國하라는 電請을 接한 汪精衛氏는 新嘉坡까지 出迎한 陳璧君夫人 香港까지出迎한 國民政府及 蔣介石氏歡迎代表 鄧力子 周佛海 周啓剛 羅卓英氏와 同道하야 十四日午後一時 上海着 獨逸汽船 포츠담號로 歸朝하얏다 埠頭에는 國民政府 主席 林森氏代表 緒民誼氏를 爲始하야 孔祥熙 張群 葉楚傖 吳鐵城 陳紹寬 楊虎等 要人 其他 朝野名士及 各機關代表 學生團等 多數가 出迎하야 歡迎하엿다 汪氏는 疲勞한 빗도 보이지안코 出迎한 要人과 一一히 굿센握手를 交한後 歡迎團體의「領袖歸國萬歲」를 熱呼하는 裡에 자못 元氣로 上陸하야 外遊後 十一個月만에 故國의 흙을 밟엇다 汪氏는 卽時 曾仲鳴氏 其他 知友와 함께 自動車를 모라 佛租界緒民誼氏邸에 入하엿다 同所에서 奉化의 蔣介石氏에게 電話로 歸國人事를 述한後 會見場所及時日을 協議하엿는데 大體로 一兩日中에 上海發 飛行機로 奉化에 赴할터이다 汪蔣兩巨頭의會見은 同地에서 行하게될는模樣이다 (寫眞은汪氏)

內務省社會局에 朝鮮人福利係新設

初代主任으로佐佐木行雄氏

內務省에서는 日本內地 在住朝鮮人의 保護指導에 着手하야 近近 社會局內에 朝鮮人福利係를 新設하기로 되엿는데 同係初代主任으로 總督府社會課囑託 佐佐木行雄氏가 轉任하기로 決定되고 同氏는 十五日午後二時四十分 京城發列車로 赴任하기로 되엿다

西叛軍海空에서 擊

【살라망카十三日發同盟】西班牙叛軍司令部發表에依하면 叛軍軍艦은 十三日午後 발렌시아港에 二十分間砲擊을加하야 在泊軍艦數隻에 多大한 損害를 與하엿다 一方 叛軍飛行機도 十三日午後 비스케이灣頭의要衝산탄데르港을 空襲하엿다고한다

人事·集會

◇楠居俊一氏(京畿道衛生課長)用務를帶하고 十五日午後四時十五分京城發渡東廿八日歸任豫定

八面鋒

◇再開議會도 一週로 迫頭。政界는 正히 緊張。
◇對中、對歐外交의 失敗를 貴衆兩院 一齊히 攻擊할 準備。
◇有田外相은 率直한 闡明으로서 同情을 求할 方針。
◇軍部는 責任을 相對國에 돌려 有田外交를 擁護方針。
◇議會에서도 軍部 勝乎? 政黨勝乎? 正히 注目거리。
◇空前의 大豫算案을 提出할 政府、解散키도 困難하러니와 攻擊을 甘受하라면 倒閣까지도 覺悟가 必要。
◇게다가 義務敎育 期間延長問題、行政機構改革問題、電力國營問題等 難問題 山積。
◇그야말로 非常時議會。

南京과西安代表 洛陽서和平交涉

蔣介石氏의招電으로張學良氏奉化에向發

東北軍鎭撫策講究乎

【上海十三日發同盟】中國側消息에 依하면 南京、西安의險惡한 對峙된兩面에잇서洛陽에서 國民政府代表와 楊虎城氏代表와의間에 極秘裡에和平交涉을開始하야 楊氏代表는頻繁히 西安洛陽間을往復하면서 中央과折衝하는中이다 이와同時에 李志剛氏가 携行한 中央側의妥協條件은 楊虎城氏가 어느程度까지 容認할는지 交涉進展의際線으로 注目된다 西安側은 中央의 善後措置에 어데까지 反對하고잇슴으로 中央이 讓步치 안는限和平解決은困難視되여잇다

【上海十三日發同盟】國民政府로부터 特赦를 바든以來 南京城外陵苑 孔祥熙氏邸에 蟄居하고잇든 張學良氏는 十三日 中央側將領十名과함께 飛行機로 南京에서 奉化로 向하엿는데 西安事態의 現局面打開에 對하야 蔣介石氏의 招電을 接하고 張學良氏를說服하야 東北軍의 安撫策을 講究할 것이라고 觀測된다

【上海十三日發同盟】張學良氏의 奉化行은 西安時局收拾에 對한 蔣介石氏의 腹案이完成되어 書者楊虎城氏의 代表李志剛氏가 西安에 歸還하여會議 楊氏에게 中央의 腹案을 提示하고現地에잇서 和平解決을 圖하는 一方 張學良氏를 說服하야 直接蔣介石氏와 條件等을 協議하기爲함이라고 觀測된다

突然한 奉化行은 西安時局收拾의 情勢急迫에 炎하야 一切의 關係를 버리고 張學良氏를 原職으로 復歸케하야서 難局을 打開할 模樣인데 張學良氏의 奉化行에 關連하야 過般張學良蔣介石兩氏間을 奔走往來한 宋子文氏가 現在奉化에 잇는것으로 局의 推移를 暗示하는것으로 注目된다

【上海十三日發同盟】張學良氏의 ... 決에對하야 協議하리라고 觀測된다 楊氏自身의 直接西安進出이 實現되지안흘가 보여진다 一說에는 中...

滿洲國皇帝께 蘭花三鉢獻上

◇南總督으로부터

南總督은 일즉이 駐滿大使로서在滿當時滿洲國皇帝의 두터운恩召에 奉報코저 일즉부터 同國皇室의 御紋章인「蘭花」의 獻上을 뜻하고잇든바 最近由緒깁게 잘生育된「定遠」「寶蔵」「玉華」의 三種三鉢의 蘭花를 今回東京에 在한 李滿洲國交通部大臣에 委託하야 皇帝陛下께 獻上키로되엿다 獻上한 蘭花三鉢은 左와 如히 由緒깁흔것이다

「定遠」日淸戰爭當時中國聯合艦隊司令長官丁汝昌氏가 蘭花를 非常히 愛好하야 旗艦「定遠」의司令長官室에 裝飾하고 잇섯는데 敗戰에 敗하야 自刃하고 그蘭花만이 남어 海軍의손을거처 故齋藤子의손에 오고 故齋藤子는 總督時代 倭城臺官邸에서 愛玩하든바 그대로今日 南總督에 傳한것으로 이미 四十二年의 오랜歷史를말하는것으로 七月頃 開花하며 芳香으로써 有名하다

「寶蔵」는 中國産으로 五月頃에 開花하고 濃綠으로 美麗한꼿이 피고 芳香이豐富하다

「玉華」는 七、八月頃開花하고 芳馥하야 蘭類中에서도 가장 貴重되고 前記二種과함께 滿洲國皇室의 御紋章을 비롯한것이다

◇南總督談

滿洲國皇帝陛下께 蘭花三鉢을 上을 李交通部大臣에게 委託한 南總督은 十四日그經緯에 對하야 左와如히말하엿다

去昭和十一年四月 滿洲國皇帝陛下께옵서 日本을 訪問하사 宮中豐明殿에서 天皇陛下와 御晩餐時 食卓에 보기조흔蘭花가馥郁한香氣와함께 노혀잇섯슴으로 皇帝陛下께옵서는 天皇陛下의기프신 恩召에 御感激하옵섯든바 當時의 全權大使인 自己에게 이약이가 잇섯슴으로 該時以來「蘭」에 關하야 여러가지로 皇帝陛下와 말삼드릴機會가 잇섯고 조흔 蘭花가發見되면 꼭獻上코저하고잇섯든바 今回 宿望을 達한것은 實로 欣快한바이다 滿洲國皇室의 御紋章「蘭」은「君子의 덕」이라」하야 香氣高하야 花中의王이라傳하고 古來東洋文에서 書가되고 詩가되여 觀賞되여왓다 이미 蘭이 滿洲國皇室의 御紋章인以上 國民이 또이에큰 關心으로서 賞揚치 안흐면 안된다 卽日本에잇서서 菊花가 皇室의 御紋章이오 國民이 또한 此를 愛玩하야 皇室에서는 特히 觀菊御宴을 開催하고 잇다 그意味에서도 皇室과 國民은 結合식히는文化的精神的 表徵이다 滿洲國民도 또한 蘭을愛玩치안흐면 안된다

今回獻上한 蘭은 다 由緒기픈 것으로「定遠」「寶蔵」「玉華」의三鉢이다 大體一國의 皇室과 國民이 國家를 中心으로하야 精神的으로 合體하는것은 日本이世界에 冠絶하는것이다 菊花라든지 櫻花라든지 이미世界的으로 定評이잇고歷史的으로도 자못興味잇는것으로 隣邦滿洲國은 蘭花를中心으로 皇室과 國民이 一體가되여 國威의 宣揚에努力치안흐면안되겟다

000769

外科 肛門病科
朴昌薰

돈벌기大王
리-드式穀物膨脹機
五合의米가八升의米菓子가되는
製藥法傳授
新型各種(カタログ進呈)
大阪市東淀川區本庄西通一 兒島製作所 (電話北五二九八番)

流行歌 港口의 追憶 南仁樹
朴英鎬詩 孫牧人曲 (一九四三)
獨唱 李蘭影
오케-레코-드

朝報案內
外務社員 採用 精通하고쫓 外에經驗잇는年齡二十五歲以上四十五歲까지의鮮人營業家를優待採用할것 希望者는履歷書携帶本人來談할事 但保證人을要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十番地 共濟無盡株式會社
讓垈 惠化町七四番地의十九 四十九坪 詳細電話本局一八六一番으로 問議
貸家 瓦家六間一座月貰八圓 七間一座十圓 內외別天地希望人은 京城府黑石町六九 漱水洞
恩給 最大長期로特別立替 京城府光化門通一四七

好職業
不景氣에도 ... 大阪市天王寺區 ...

藥 御問屋
株式會社 新井藥房
京城南大門通二丁目 代表
電話本局 九四〇一·八六〇一 九四〇三·八四〇三
振替京城一一六番

旗 カメヤ旗店
京城府本町二丁目
カタログ進呈

各種信託 低利貸出 迅速有利
朝鮮信託株式會社
京城南大門通二丁目十九番地
社長 谷多喜磨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平壤、大邱 (營業案內贈呈)

富與公司時計部

大阪著名問屋案內
가정국수·소바·호떡其他여러가지반찬에고초가루
合資 華椒粉

空氣銃 ヤマト商會
大阪市西區北堀江 振替大阪六〇七一番

眼鏡 煙草具專門製造卸 津田嘉助商店
大阪市東區博勞町三丁目四

錢入袋物現金問屋
株式會社 廣島屋本店
大阪市東區博勞町一ノ二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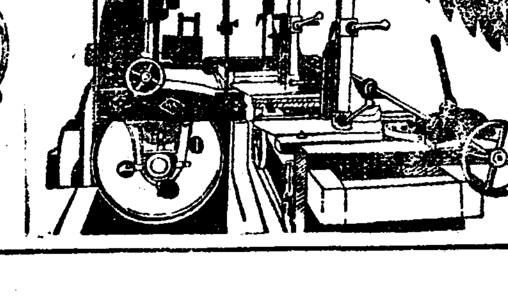
ハーモニカ
蝶々バンド ピックアップ 川口蝶超特選
元賣發 吉川樂器店
大阪市西區新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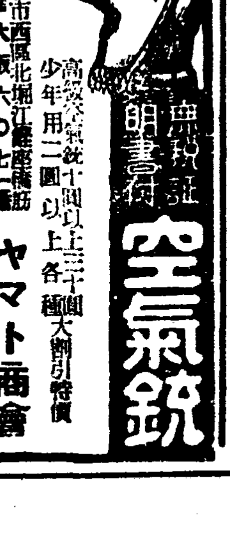
信用잇는 卸のデパート
日本百貨均一卸協會
大阪市東區久寶寺町二丁目

精米機ポンプ 發動機噴霧器 (カタログ送呈)
有光製作所 大阪西區阿波座上通一

機械ト工具製造卸
合名會社 八木機械工具店
大阪市西區立賣堀北通四丁目

各種製材木工機械專門製作
細田商事合資會社
大阪市西區北堀江三番町二

木炭發動機 ウエム重油發動機 セココ經油發動機 セココ高級精米機
中央貿易合資會社




貨物列車大脫線 十餘輛川中墜落

乘客乘務員은 多幸이 無事

昨夜高山三防間서

십사일 오후령시사십분경성발원산행 화물렬차제오백륙십삼렬차가 이날오후여덟시오분경에 화물차스물여섯대와 삼등객차한대 차장차한대보조기관차를 끌고 경원선 삼방고원(三防高原)사이를 달리는중에 렬차가『삼방제십삼교』에 다다랏슬때에 압기관차로부터 열채화물차까지는 무사통과하고 열한째열두째화물차가 돌연탈선이 되면서 내바닥으로 떨러지고 열세째열네째 열다섯재 화물차 세대는 다리를 건너서 탈선이 되여 너머지고 열여섯재 화물차로 부터 스물둘째화물차 까지 일곱대는 다시 내ㅅ바닥에떠러지고 스물셋재 스물네째화물차는 탈선된채 철교에 걸리게되엿스며 그다음으로 차장차한대와 삼등객차한대와 보조기관차는 다리우에 그대로 머저잇다

이와동시에 객차까속 난로로부터 불이일어나 객차와차장차는 전부불에타버려 승객열여덟명과 승무원들은다행히무사하엿는데 이급보를드른철도당국에서는 십사일오전한시 구급렬차를 동산서부터현장으로급행식히는 동시에 청수(淸水)공무과장이하 기술공이십여명이 현장으로 출동하야 복구공사를 하는중이나 장소가 다리우이고 도천분의이십오나되는 내리막이므로 공사를 하기가 극란하며 십사일오전아홉시십분 원산발제오백칠렬차로부터 승객은 전부도보련락을식히고 복구공사는 수일이나걸리리라고한다

客車兩臺는 燒失 乘客은 徒步로 連絡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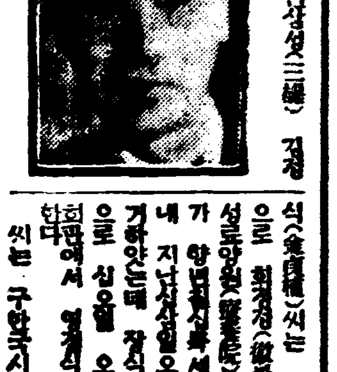
【元山支局特電】십삼일오후아홉시경 경성발 제오백륙십삼호렬차가 룡산기점일백칠십키로 삼방(三防)고산(高山)사이 삼방제십삼교량에서 화물차여섯대가탈선되고 아홉대가전복된 대사고가발생되엿다 이와동시에 뒤에달렷든 기관차와 삼등객차와차장차는 다리우에서탈선되여 다행이승객들은 무사하엿스나 객차속에 란로로부터발화하야 차장차까지두대는 불에타버리고 남은 화차들은 노피열미돌이나되는다리우로부터 내ㅅ바닥에떠러젓는데 아즉 손해와원인은알수업스나 복구시일은 열흘을걸릴모양이라하며 현재경원선 승객들은 오백미돌이나되는 내를 건너서태왕하는형편이라고한다

벼盜賊被捉

고양군룡강면마두리(高陽郡中面馬頭里)에사는 로동자 편도제(片□在)는 십이일 오후열한시로부터 익일오전한시까지 의사에 가튼동리 설이동(薛二童)의정미소의 두군데서 벼여덟섬을훔처서팔아먹은후 숨어단기다가 십삼일오후여섯시쯤에 서대문서원에게 발각되자 전긔설이동은 미소뒤에잇든 경찰텐이 속으로 은신하여버린것을 경관이동리사람의 응원을어더서 장때로찔러가며 잡어내엿다한다

基督敎界元老 金貞植氏逝去 享年七十六歲

조선중앙긔독교청년회 창립자의 한사람이오 도동경 조선긔독교청년회 창설자로 현재중앙청년회 리사이상섯 김정식(金貞植)씨는 오래동안 로환으로 회계정에잇는 경성양로원에서 치료하다가 얼마전부터 세브란스병원에 입원치료하든중 지난십삼일오후여섯시에 서거하얏는데 장식은 동청년회장으로 십오일 오후두시 동청년회관에서 영결식을 거행한다고 한다



씨는 구한국시대에 경무관으로잇서판관계와의관계를 일체끈은후 종교계에투신하야상신여변전부터조칭긔에잇는 조선외아이엘씨에이에들어서부터 이래동청년회의 제일대총무를비롯하야 동청조선긔독교청년회의총무를 십여년동안 헌신하여서 당시의문화생지도에 헌신하여오다가 최근에는 로령으로 시내청량리자택에서 은퇴생활을하는중이엇는데 씨는 친척도자제도업시 그부인과함께 고적한여생을 보내다가 쓸쓸히세상을떠나고말엇다 (사진 김정식씨)

鼠賊一束 구변말통 두고부내

용산서 관내에는 각처에 좀도적이 차차 발호하야 도난사건이 빈발한다

▲지난팔일 오전한시경으로부터 동여섯시까지의 사이에부내공덕정(孔德町)십번지장봉진(張鳳鎭)집에 엇더한 괴한이침입하야라디오기계한벌과 화로 식기의류등을 절취도주한사실이 소관룡산경찰서에 계출한일이잇고

▲또지난 십일오후 여섯시로부터 동열시까지에 시내삼판통(三坂通)이백이십칠번지 촌강정차랑(村岡政次郞)집에 어느괴한이동가의담을넘어 침입하야 그집주인의 외투 의복등 시가이백원가격의물품을 절취하야 도주하엿다는 사실이잇섯다는데 절도의행색으로보아 동일한 범인이아닌가하고 소관경찰서에서는 경계수사중이라하며 그외에도 이삼처나 도난을 당한곳이 잇다는데 서적(鼠賊)들의 발호는차차 심하여가는모양이므로 일반가정은 도난방지에더욱 주의하여야 할것이라한다

百가지物價가올라 家庭主婦一齊悲鳴!

廚房에서들리는 귀압흔 악다구니소리

일용품가가 작구 올라서 일정한 수입밧게 업는 봉급생활증이하의 대중의 생활을 위협하야 그들의 주방에서는 주부(主婦)들이 수지(收支)를 마출 도리가 업서 비명(悲鳴)을 올리고잇다 경성부권업과(勸業課)에서 십사일까지 공설시장에서 조사한바를 보면

▲사탕은 지난달 십오일이래로 한근에 이십삼전에팔든것이 이십오전으로 올랏고

▲참기름은 한병에 사십오전으로 팔든것이 사십칠전 백교자유(白絞子油)는 한병에 사십전에 팔든것이 사십이전으로 올랏고

▲채소류는 일반 적으로 일할오분가량 올랏스며

▲양철통(빠겟스)는 한개에사십오전에팔든것이 단번에 오십전으로 올랏고 세수대야는 한개에 칠십전에 팔든것이 팔십오전으로 또 오십오전짜리는 칠십전으로 집집의 『크림』을위시한 화장품은 리면에 팔든것이 이십륙전으로 또따라는 사분지일 『꼰드』는것한통에 삼십팔전에 팔든것을 사십전에 팔고잇다 그래서 양식당(洋食堂)에서도 갑작히 영향이 미치게되엿다

▲계란은 상품열개에 오십오전에 팔든것이 오십칠전으로 그다음것은 사십오전으로 팔든것을 사십전으로 각기오전전식 협해젓다

▲『스루메』는 상품은 한축금에 일원이십전이든것이 일원사십사전으로 올랏스나 보통품은 륙십전이든것이 오십전으로 도로 협해젓다

「루」大統領에게 돈달란사나이 알고본즉精神病者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씨에게 현금사백원을 간청한 우습게 웃지못할사나이가잇다

십사일 시내서대문서고등계에서는 미국령사관으로부터 영문편지한장을 반송하여왓는데 그편지의발신인은 경성사는「이·와이·루-즈벨트」라고 하엿스며 미국대통령에게보낸것인데 그내용인즉 길다란안부를한다음 자긔는 조선사는 당신의일가이라고 하고 돈사백원만 부처달라는것이엇다 이편지가 멀리태평양을건너서 『와싱톤』백아관에까지 도착하여 다시 미국 령사관으로 반송된것인데 소관 서대문서에서 조사한결과 그발신인은 시내 수철정(水鐵町) 삼십삼번지사는 렴해영(廉海榮)이란 사람인것이 판명되엿다 그는일즉 배재(培材)학교를졸업하고 영어에능통된사람인데 정신이상이생겨서 그와가튼일을 한것이엇다

延、玉兩名함께 檢事또檢證 蘇島老婆殺害事件

루보=독섬로파참살사건의 범인에대하야는 연자근문(延自斤文)이와 옥건창(玉建昌)의 소행으로단정되여 십삼일부터 실지검증을 하엿는데 십사일오전열한시경에도 역시 근등(近藤)검사 야촌(野村)형사과장과 평림(平林)동대문서사법주임이 전긔범인두명을대리고 또다시현장검증을하러 나갓는데 이와가티 여러차레나 현장을 검증하는것을보면 범인의 자백은잇스나 물적증거가빈약하야 이에고심하고잇는것으로 재차검증한결과또어떠한 전연다른 국면이전개될는지도 몰라 자못주목되는바이다

梅鉢放火犯人求刑

주인의 돈을훔치고 그범행을감추기위하야 주인집에불을노와전소케한 부내종로(鍾路)일정목팔번지 우동집매발(梅鉢)의 고용인시야춘일(矢野春一)에관한 방화(放火)절도피고사건공판은 십사일오전열한시부터 경성지방법원에서 증촌(增村)재판장주심 주견(酒見)검사관여미테 징역십년구형이 잇섯는데 언도는오는 이십일일에 내리기로되엿다 시야는 소화구년사월부터매발우동집고용인이되야 이래일을하여오든중 작년십일월이십일일주인의방에 들어가서 현금삼십원과단도한자루를 훔처가지고그범행을 숨기기위하야 칼로천정반자를뚤코 미리준비하엿든 신문지에 불을 부처그안에 집어던저 그집을전소케하야 손해약일만이천원을 내게한것이다

天氣豫報

概況 高氣壓은 蒙古로부터滿洲、朝鮮에 퍼저잇고低氣壓은 日本本州方面에잇다 仁川海上에는 小低氣壓이잇서 不連續線을그으며東進하고잇기때문에 朝鮮은 곳곳이 흐리고中部以北의 西岸에는 昨夜부터 小雪이잇섯다 京仁地方과中江鎭에는 아직 눈이오고잇다 滿洲는개이고 日本內地는 흐려잇스며 日本海沿岸은 곳곳에 降雪이잇스나 北海道樺太는 개여잇다

豫報 今夜는 개이고 추어진다 來日도 가트며 京畿道全區도 同

昨日 最高 零下一度一 最低 零下十二度六 同 零下五度二

軟線色怪『류럭』! 行人轢殺逃走 血海이루운事故現場

연록색화물자동차가 사람을갈아죽이고 안개속에 살아진 사건이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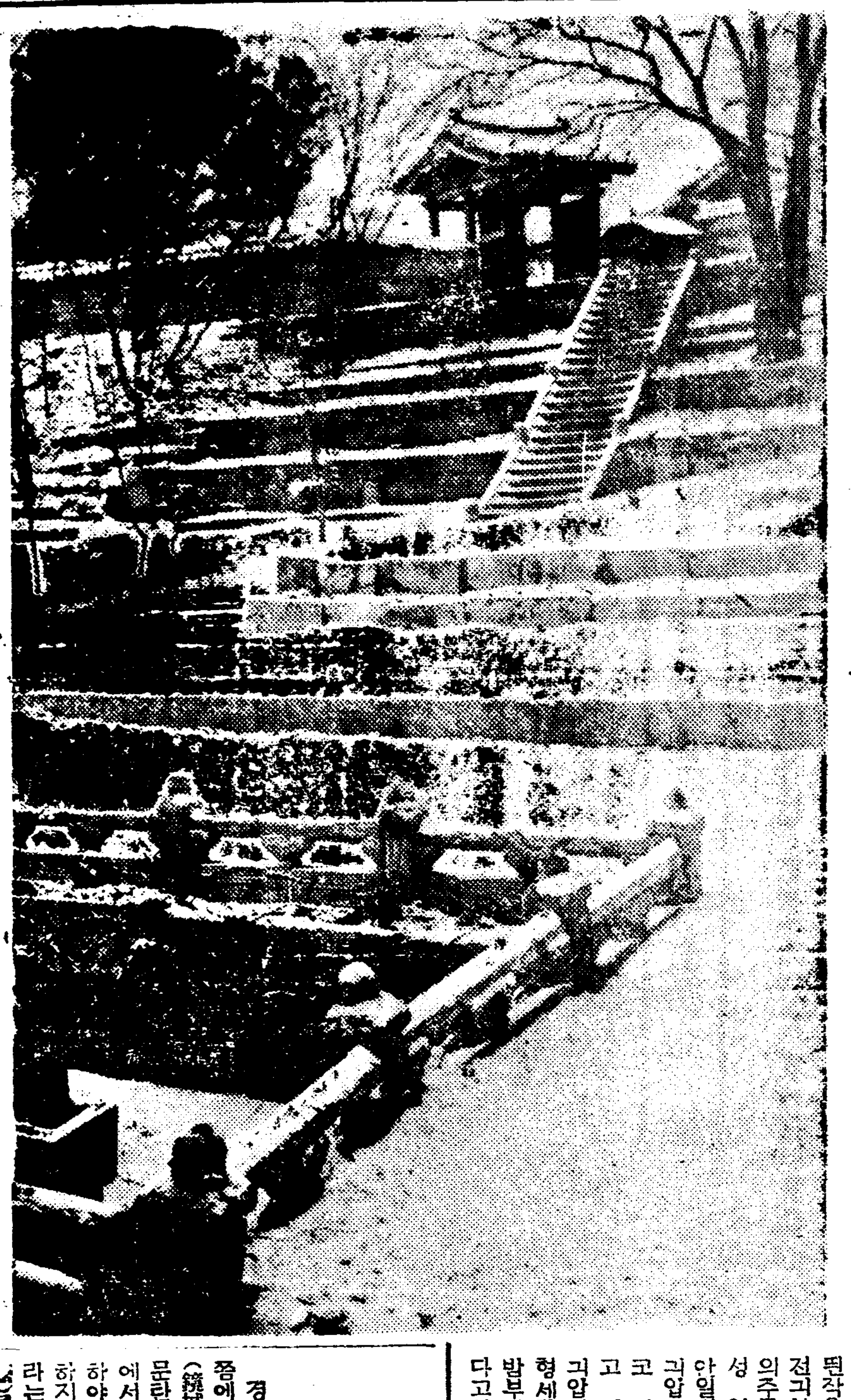
십일일 오후일곱시부터 여덜시 사이에경긔도 수원군 일왕면 파장리(水原郡日旺面芭長里) 압길가에 보기에도 끔직한 피투성이의 빈사의남자한명을 통행인이 발견하고 곳부근병원에 테려다가 응급치료를 하엿는데 십이일 오전다섯시에 『연록색의 화물자동차가 나를 룩살하고다라낫소』하는 외마듸소리를남기고 절명하고말엇다 곳 수원경찰서에서 활동한결과 피해자는 수원군일왕면왕곡리(水原郡日旺面旺谷里)사는 농업 윤석준(尹錫埈)으로 판명되엿스며 그날저녁수원읍내 시장에갓다가 도라오던길에 그와가티 룩살된것이판명되엿다 그러나현장에는단지 자동차문고리(도아캣취)한개가떠려저 잇슬뿐이고 누가운전하던 어떤자동차의 소행인지는 아직전연 알길이업슴으로 방금 그범인을 부잡으랴고 각처로

鏡城 會文炭坑大火

경성국착전=작십삼일오후두시쯤에 함북경성군주남면 삼향동(鏡城郡朱南面三鄕洞)에잇는 회문탄항(會文炭坑)(함경선회문역에서약사십리)재일항내에서 발화하야 ... 하지를 못하고 ... 라는 보고가 어대진서(漁大津署)에도달되엿다 발화장소는 재작년말부터 채굴을 중지하고 아무도 출입하지 안는 장소인만큼 자연 발화가아닌가고 보고 잇는데 원인에 대하야는 ... 상자는 업는모양이다 이급보를접하고 어대진서로부터 경부보이하사명이 현장에 급행하야 회문소방조를 소집하고 소화에 노력하고잇다 손해정도는 아직알수업다

夜來長安白一色

좃치안흔 겨울이라고 별니 명이부른 금년겨울도 약일주일전부터 겨울의 본성을나타내어 별안간 수은주는 령하십삼도를 올려 내리더니 십삼일오후 열한시쯤부터는 국경방면인 중강진(中江鎭)신의주(新義州)일대로부터 경성인천등 중부조선 이북 서해안일대에 겨울이라도 보기드물든 눈이내리기 시작하야 십사일오전열시까지 일미리 내지삼미리 쌓히엿다 즉이번센지내외가 경성측후소원의 말을들으면 이번눈은 국경 일대로부터 경긔만(京畿灣)에걸처서 나타난 불련속선(不連續線)을 띈작은 저긔압의 영향으로 전긔한바와가티 중강진 신의주등 국경지대로부터 경성 인천등 중부이북 서해안일대에 내린것으로 현재 긔압 배치로는 더게속치안코 개일것갓다고한다 그리고 긔온은 대륙에잇는 고긔압이조선방면으로 움지길형세를보이고잇슴에따라 오늘밤부터다소추워질는지도몰른다고한다(사진은덕수궁에서)



京平健兒들이 견우는 銀盤우에霸權

劈頭五百、五千米兩種目에 京城軍이優勢

경성과 평양에산재한 빙상아(氷上兒)들중에서 추리고추려뽑은 이십여용사들이 한마당에모여서 자웅을결하는 제륙회경평대항빙상경긔대회(京平對抗氷上競技大會)는 경성의 백구(白狗)평양의 련광(練光)량빙상구락부공동주최와 본사후원아래 금십사일오후두시반부터 청량리정(淸凉里町)링크에서 장쾌한막을열엇다 정각이되자 량군의입장식이잇서 먼저주최측으로부터 백구구락부(白狗俱樂部)김룡구(金龍九)씨로부터 개회사가잇슨후 후원측으로 본사사장 방응모(方應謨)씨로부터

이번에개최되는 경평대항빙상경긔대회는 단순한운동경기로서보담도 경성평양량지방의친목의의미로보아 중대한의의가잇슴을축하하는동시에 지방적대항인만큼엇가지 고결한운동정신아래서 잘싸와주기바란다 는축사가잇섯고 대회위원의경긔진행에대한 주의설명이끗난후뒤니어 오백메돌레-스로부터 열전은 전개되엿다 간밤에나린눈으로 은세계를이룬 링크우에서 각고향의명예를질머진 맹장들의 충천(衝天)하는의긔는 장내를의압하고도 남음이잇섯다

【五百米】(오픈코-스獨走)
▲1崔昊洙(京城)四七秒二
▲2李仁源(平壤)四八秒二
▲3金永河(京城)五〇秒一
▲4白承旭(京城)六二秒九
▲5金正洙(平壤)五三秒二
▲6金龍燦(平壤)五三秒四
▲7李星煥(平壤)五四秒
▲8白承哲(京城)五五秒
(入賞은四着까지)
【得點】京城軍十一點 平壤軍五點

【五千米】(오픈코-스四名式出場)
▲1李仁源(平壤)九分三八秒二
▲2朴性用(京城)一〇分三八秒五
▲3金永河(京城)一〇分四四秒四
▲4白承旭(京城)
【得點】京城軍九點 平壤軍七點

【千五百米】(오픈코-스獨走四名式出場)
▲1李仁源(平壤)二分四四秒
▲2崔昊洙(京城)二分四五秒一
▲3金永河(京城)二分五七秒
▲4金正洙(平壤)三分〇秒
【得點】京城軍八點 平壤軍八點

◇兩軍得點表

	五百米	五千米	千五百米	一萬米	二千米繼走	總得點
【平壤】	5	8	7	?	?	?
【京城】	11	8	9	?	?	?

(사진은 대회입장식과 오백미돌경기 출발선상에 량군)

出家한少女

십삼일 오후두시쯤되여 시내 삼청정(三淸町)이십번지 김병두(金炳斗)의누이동생 귀영(貴榮)(一八)이가 집을 나간채로 밤이되여도 도라오지안홈으로 소관종로서에게 출원하엿다고한다

母性에靈藥 젓잘난는약 라구도민
適應症 乳房發育不全、疾病熱病貧血萎縮等原因으로乳汁欠乏症에偉効、又胎中補藥으로使用합
藥價 三円 六円 十円
國際新藥硏究所

레코-드와 蓄音器는 골럼비아
新春特賣……『콜럼비아』新型蓄音器
新型 No.135 定價¥135.

待望의電蓄完成!! 斯界驚異 콜럼비아新電氣蓄音器
家庭用에! 商用에!
音量·音質共完璧

가이자ー 분만드럿습니다 만일무효면여하한책임이라도집니다
보음보양 젊어지는 가천하에서제일입니다。 동서양에서 제일조흔 정력약
전문약을쓰시오
절대로신성당약을 신용하시고 쓰십시오。
경성서대문신기신성당약품주식회사로주문하시오 電話光化門三三四番、振替京城四九五〇番

生徒募集 簿記珠算 京城實踐簿記學院 (舊、夜間部學則進呈) 太平通二 大漢門橫入

特約販賣店募集 註文은 有恒社藥品部 京城府苑南町一九番地 電話光一四三〇番 振替京城七九五六番

독일호프만박사가발견한매독균겐 梅毒特効藥 日東도구루丸

淋巴腺 結核 きれいる 專門藥 效能正確、副作用업시깨끗이되여다시再發치안음 大阪 和歌山市 るいれき專門藥院

創立明治參拾貳年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大下珍味 黃州苹果直賣 黃州農園

淋疾 苓茸五淋錠 朝鮮靈藥硏究所

第十四回全州藥令開市

助陽とと虫 九龍虫 不老長生

림질 대하증엔

구로벨 이제일이요

超스피-드空中征服(공중정복)時代(시대)다 이사진은 비행기의가는 길을잘살펴서고장업시 속력을내는 광경이오 병에도 위선약을선택하야 치료하여야합니다 림질약도하도만흐니다 른약에속지마시고 제일속하고안전하고 신용잇는 약 구로벨을쓰시오

효력최극상 최특등 전세계에서 제일유명한 독일약(헤루미도-루)만 도히 들엇고세계적 대신 발명한 약제도전보담만히 더느엇답니다

◇남녀만급성림질、부인적백대하증、남녀냉증、오줌소태、월경 고르지 못한데며 하혈(下血)등으로 별치료를하야 보고별별약을써도 무효하야돈만허비하고 근치안되며 고통하는분은 이것저것수저할것업시안심하고 제일먼저 신발명한(kurober)구로벨을쓰시오 구로벨은 틀임업는약이다 이러한자신(自信)을 어든결과환자의 안심과신용을엇기위하야장담하오니안심하시고쓰시오

구로벨의특장

一、약효가강렬하야 여러해된 고질특히 재발한만성림질과 대하증은 물론 림독성으로된방광염고환염 (산증)섭호선염자궁내막염란소염라팔관뇨두협착등에속효

二、이약은다른약과가티 지리하게오래동안먹고만급성간에오래된고질 만성증이라도일주일내로효력을보고

三、림질약치고 위장이안상하는약이업는데구로벨만은조곰도안상하고 다른부작용이조금도업습으로 위장이약한분이만이먹어도드림하나안난다는 말으효험본여러분의찬송하는것이오 그런데이약이속한리유는다른약을오래쓰게되여 그동안조섭이곤난한소치엿다

【약갑】 완고약성에구원·만성과타지증에오원 대하증、냉병기타부인병에오원、급성과부인오줌소태에삼원、지방송료선금십오전대금인환은삼집오전 (오원이나삼원이나다일주일분)

만일 무슨 약이든지 이삼일쓰시와 특이성의체질(特異性體質)노병에안맛거나광고 와틀리는 점이잇거나 마음에 안맛거나 특효가업거든 약을 곳보내시요 청구하시는대로하여드리겟습니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五) 제일큰서양약집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振替京城四九五〇番 電話光化門三三四番 (그전신성당약품부)

림질약이

신성당이독판첫다고그런부터입달닌사람이면다ㅡ말한다하오(다른약은안그런가)하는수업다결국잘낫는약이독판칠수박게

십여년된고질이나엇다는감사장이업스면절대로신용마시오 감싸고화리리만고경품만히주는약은결국갑싼갈치자반이지오

당신은하도만히감사장업는약에속아서이감사장도밋지안켓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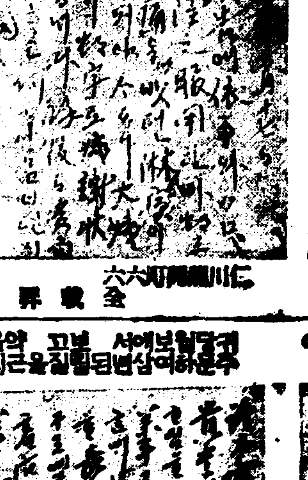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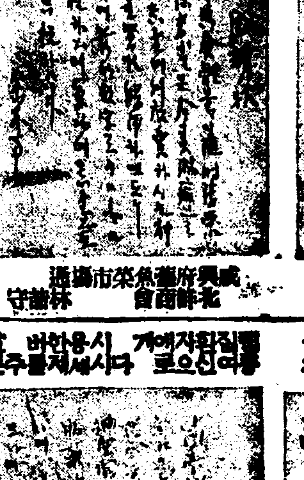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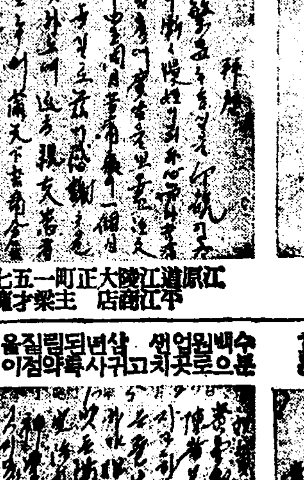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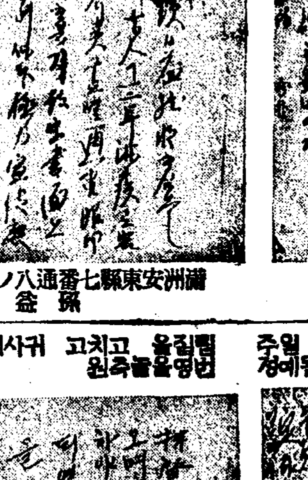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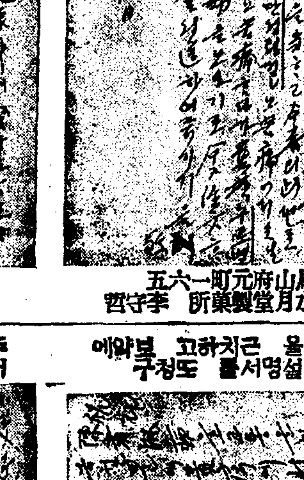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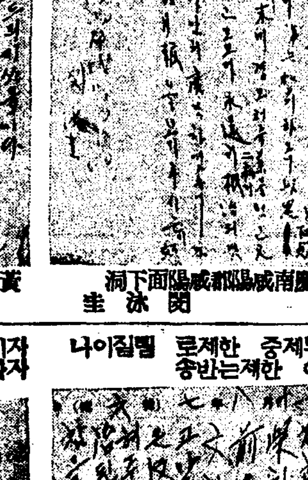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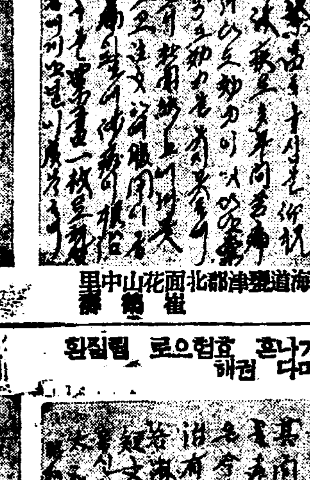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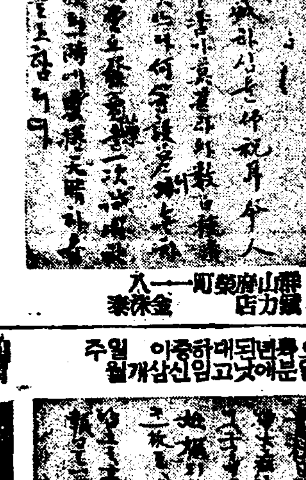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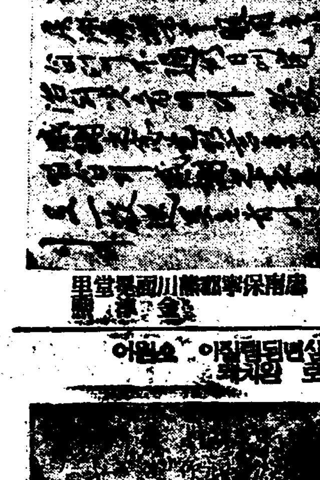
그러나이삼사장을위조하면(僞造)즉시거짓말로서미면사훈서위조라고경찰에서야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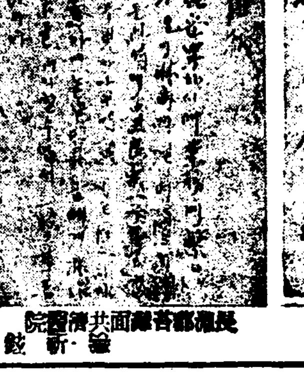
그러니이감사장만은절대로밋더주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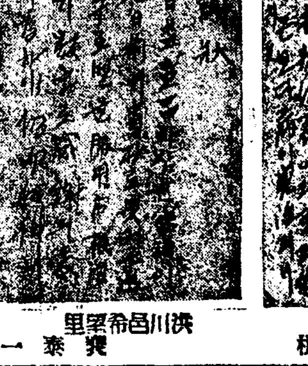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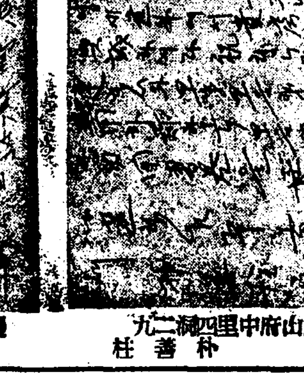
속히구로벨을쓰시고 이런옥동자를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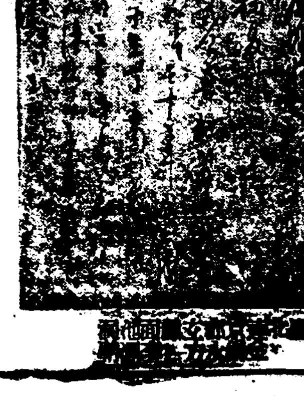
이이는엇지하야 장님이되엿나 림질균이눈에드러가면눈이멀고 태중에림질대하증에걸니면눈먼아희를난다

000770





벼슥에서 물려바든

부모의 병환
애기네야 무슨죄?

그러나 사회로보아 단종이필요타
◇결혼부터 삼가할일

어머니 아버지의 병환이 그자녀에게 유전됩니까? 안 됩니까? 옳은 유전되는 병도 만습니다. 아조 희귀히 알어 낸 것만도 수백가지나 된답니다. 그러나 유전병은 대개가 희귀한 병일뿐이 아니라 보통의 전염병과는 전연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오늘날 유전된다고 떠드는 병으로 말하면 만히 그런치 안흔 것이 퍽 잇습니다. 위선 매독도 생산할때 자궁내에서 전염되는것이지 유전은 아니라고합니다. 즉 매독은 전염병의 일종일지언정 유전병은 아니란 말입니다. 유전병에 대하야 이야기를 하겟습니다.

색맹(色盲)은 유전병의 하나입니다. 색맹이란 남이보는 빛갈을 보지 못 하는 병으로 혹 푸른비츨 못보고 혹 붉은 비츨 못 보기도 하고 또혹 여러 비츨 모두 못 보기도 합니다. 산구씨병(山口氏病)도역시 유전병의 하나입니다. 산구씨병이란 밤에 보지못하는 병으로 산구씨가 발견한 까닭에 그리케 부름니다. 그런데 색맹은 평균 백사람중에 넷쯤 되고 산구씨병은 평균 십오인 내지 백만인중에 하나쯤 됩니다. 이두가지의 병으로모든 유전병을 도 밀어 말하기는 어렵지마는 사실로 유전병은 대개 이두가지병 때가리 희귀한 병입니다.

×

유전병중에는 레·삭스씨병이라고 난지 반년내로 병이생기어서 눈이 멀고 천치가 되엇다가 이년내로고만 죽어 버리는 병도 잇습니다만은 이 병은 자손이 번성치 안흔만큼 그대로 내버려 두더라도 자연히 씨가 저서 업서 질것입니다.

또 유전병중에는 이롱증(耳聾症)이라고 가는 귀가 먹은병이요 다른데는 아모런치 안 한병도 잇는데이 병은 생식력(生殖力)에 지장이 업기때문으로 자꾸퍼지지 말란 법이 업습니다 더구나 저능(低能)과 가튼 유전은 오히려 보통사람보다도 더 왕성 자손을 만히 나코 잘길러서 자꾸자꾸 번식하게 됩답니다. 우생학상(優生學上)으로 보아서 그런씨는 아이를 못나토록해가지고 애초부터 단종(斷種)을하여야 할것입니다. 하여튼 결혼이란 극히 주의를해서 해야만됩니다. 하고 만흔사람중에서 웬못된 유전병자와 결혼을 할맛은 조금도 업는일입니다

×

결핵은 유전병이냐 아니냐 아직도 의론이 분분합니다. 설사 결핵이 유전병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유전병과는 전연 성질이 다릅니다. 본래 결핵이란 병에는 걸리기 쉬운 체질과 그런치 안흔 체질이 잇습니다. 그런니까 체질이 유전되는 것이지 결코 병자체가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문동이가 유전병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의론이 만습니다. 그 것은 과연 어떠지 아직도 종터 학자의 연구를 기다릴 수 밧게 업는 일입니다. 하여튼 유전병을 생각할때는 우생이 확실히 필요한것이라고 느끼어 집니다. 우리 인류의 발달은 몬저 그러한 악병의 퇴치를 전제해야 할것입니다.

부인네 구실은
체질의 표식
월경의 정지는 반드시
임신에만 오지안는다

아이를 배면 월경이 꼿치진다는것은 세상사람이 다알고 잇는 상식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월경이 꼿치젓다고 반드시 아이를 배엇다고는 할수 업습니다. 월경은 부인의 체질을 아는표식이 되는동시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월경을 중요시하고 판단하지안흐면 안될것이 여러가지잇습니다 대체어떠한때에 이십이상의 성숙한부인으로서 아이를 배지안코도월경이 정지되는지 아라둘필요가잇습니다.

만약 월경불순이라든지 임신치안코 월경이 정지될때에는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바더야할 것은 물론이나 월경불순 월경정지는 반드시 당처의고장으로만 이러나는 현상이안입니다. 당처이외의 기관에 고장이 생기면 월경이불순해집니다. 례를 들면 결핵성(結核性) 질병에는 의례히 월경이 끄처집니다. 그밧게 아모런고장이 업드라도발육이완전치못하면 월경불순이 이러납니다. 월경이 처음으로 이러나기는 열두살부터 열여덟살까지나 너무늣게시작되는것은 조치못합니다. 전연 월경이업는사람은 물론병신입니다.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원인으로말미아마 월경불순이되는것은물론 정신적으로 너무과히 쇠약해젓다던지 감동을과히바드면 월경이정지됩니다 또한 이때까지 살고잇던 집에서 다른집으로 이사를가도 월경이불순해지는수가잇습니다. 그러므로 농촌에서살다가 도회지로 올겨오면 흔히월경이불순해집니다.

그외에도 아이를배지안흔서서 무리하게 임신할수잇슬까하고너무과히 생각하면 월경이정지되여서 이상개월동안 아이를뱃것처럼배가불러지는데 이것을가상임신(假想姙娠)이라하야 일종의 병입니다.

그러므로 월경 불순과 정지가이러나거던 의사의 진찰을밧고 의사의지휘를 바들수업는사람이라하더라도 당처치료를 밧하는데 온갓조양을쓰는것은 잘못입니다 당처이외에 몸이나 정신에 무슨고장이 업는가항상먼저살펴본다음에 치료하도록 하지안흐면 안됩니다

『응아응아』

우리갓난애기는
우는것이말。
배고프면
응아응아
잠이와도
응아응아
안어달라고
응아응아
울고 자는동안에
자꾸만 자란다。

(글쓴사람 정우영)

가정의학

問 륵막염으로페병

경성 금년십칠세소년이온대작년 륵막염이라하야 모병원에가서 진찰을하니 한약을 복용하얏사오나 그후시골로와서 전폐치못하얏습니다。그런데약삼주일전부터 열이나고 가슴이꼭꼭마치며 량편어깨가 조여으로 쑤시고 식욕이업고 꼬만증이생기며 한반년전부터는 좌편륵골에둥근 다마사탕만한 것이나와 아프더니 지금은 가란안젓습니다。그리고 얼골은 보는사람마다전보다 낫다하오니 어떠한병일까요 자서히 가르처주시기바랍니다。또륵막염으로페병이될수도잇습닛까 (井邑 P生)

答 륵막염진단을바닷다고요또 당신이지금무든증세로보면 륵막염증세도잇는것갓습니다 륵막염으로페병이될수잇나고요 그런일은만습니다 남이보고 얼굴비치낫다고하야 안심마시고 도착한진찰을바다보십시요 폐도건강치못할것갓습니다. 치료는 그시그시 증세에따라 일정치안하오니 지상으로 가르처드리기는 어렵습니다 (秉來醫院 朴秉來)

問 소변자수보는증세

생후륙십사세된 로파자입니다 소변이 자주나와 한시간에 오륙차나 됩니다。이런증세는이십여년전부터 시작하얏스며 출입이불편하오니 곳칠도리가업슬까요(東部町老女)

答 신장염으로그런지 그런지 혹은신경성으로그런지 복약치료에크게 분간이업습니다。또이십여년이나 되앗사오니 치료한다하더래도속히낫게되지 의문입니다。하복부를더웁게하시고 한번병원에가서 여러방면을 바다보시게하십시요。(秉來醫院 朴秉來)

◇쟁선구을때

생선을 구을때는 석쇠에 초를 발러서 몬저 그것을 달궈서 생선을 노코 구워야만 생선이 까마케 타지를 안습니다.

또 생선을 구을때는 약한불에다 오래노키나 화력 센 불에다 가까히 대지말고 잘피운불에다가 멀리 조여 구어야만 잘타지를안습니다.

간이 얼간의 생선은물기가 잇서 그냥 구어서는 자꾸 부스러집니다. 씻어서는 물기를 쪽 빨고 구어야만 됩니다.

목욕하고나서는
수건으로 마찰을 할열
—옷을곳입으면감기들기쉽다—

추운겨울밤에 혼자서 떨고잇지말고 목욕을 하는것이좃습니다。그러나 목욕을 하고나서 잘못하면 감기가들것이니 주의하여야합니다

목욕하고나서 감기를 안들게 하는법은

첫재 목욕할때에 뜨거운물에 단시간들어잇기보담 뜻뜻한물에 오래동안 들어잇는것이 좃습니다。

다음에는 목욕탕에서 나오는결로 곳 옷을 입는것은 감기들 장본입니다 목욕탕에서나오면 크다란 타올로 몸을잘문지른다음 잠간동을 시킨다음에 옷을 입도록하지안흐면 안됩니다。 옷을입기전에 타올로 마찰을 하면 나중까지 몸이훈훈해서 대단히 좃습니다。

만약 몸이 튼튼하고 용기가잇는사람이라면 목욕탕에서나올때 냉수를한그릇 떠퍼쓰고 타올로마찰하면 아모리추운 날이라도도모지 추운줄을모르게됩니다。

목간을하고 떠온동안에 속히 자버리면 조흘것가트나 몸이 더운동안에는 자연히 잘도 잘오나 몸이 식으면 잘도 깨여버리고 감기도 들게됩니다。

그러므로 목욕하고는 반드시 몸을 잘 시킨다음에 옷을 입는것과가리 잘도 몸이 식은뒤에 자도록 하지안흐면 안됩니다。

新春文藝一等當選長篇小說

城隍堂 【2】

鄭飛石 作
鄭玄雄 畵

어느듯 황혼이 지펴 기운산 골짜기에서 피여나기시작한 황혼은 나무를 에워싸고 개울을 덮고 점점 산허리로해서꼭대기로 뻗기시작하엿다 바람이 여느때보다도 차거웁게불엇다 갓나온 떡갈나무이피 바람놀마저 사르륵 사르륵소리를 내고잇섯다 길여뻬 숲에서는 금방호랑이나 산도야지가 뛰여나오지 안흘까십게 굴가리 새깜하엿다 그러나 순이는 그런것은 조곰도 무섭지안헛다 산에서나서 산에서 자란순이엿다 순이는 현보가 붉은 고사댕기와 흰고무신을 사가지고 올것을 생각하면 아모것도 두렵지안헛다 그는다시 발을빨리놀렷다 순이가 철마령을 십리나 추어올랏슬때에저편에서 흥다령을하며 오는사람이 잇섯다 그목성은 틀림업는 현보엿다

그것이 현보인것을알자 대뜸 순이의가슴은 덜컥내려안젓다

『산골에 귀물은멀구나 다래인간에 귀ㅣ물은우리님허리』

이것은 현보가 아는단하나의 노래엿고 그리고 현보는 의례 술을 한잔 한후에 야만 이노래를 부르는 것이 엇다 순이는 이노래를 듯고 댕기도、고무신도 허 얄낭창이로구나 생각하니 가슴밋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분노를 참을수업서 길바닥에 떡버티고스며 주먹을 불끈쥐고 어둠속에서 가까히 오는현보를 노려보앗다

현보는 등에 짐을걸머진채、흥얼거리며 그대로 지나가랴다가 다시 한번처다보드니 그제야 순이인줄을알고 깜작놀라며

『순이가? 너 어뜨케 여기꺼지왓네? 욕지—내 마중와주나옹?』 하고 얼근히 취한음성을 굴리며 순이의 어깨를 붓잡으려한다

『그래! 신은 사오는거요?』

하고 순이는 현보의 팔을뿌리치며 톡쏘앗다

『옹? 그럼 나를 마중나온게 아니구 신사오는가 해서 여꺼지와구나!』

『신? 사오구말구! 재현 고무신、순이신을 고무신、말숙헌 하이칼나신사오구말구』

하고 현보는 다시 순이의 소매를붓잡엇다 순이는 정만못바게 신을사온다는김에 긴장이탁 풀리고 반갑기만해서 아모반항도 하지안헛다

『정말 서오우?』

『그럼 안사올까원! 순이 고무신을 내래안자다주믄 누구래 사다준다구!』

『어디 봅시다』 하기도 전에 현보는 벌서 부스럭부스럭하드니 고무신한켤레를 꺼집어내여 순이에게 주엇다

『여기서 한번 신어봐런?』 하는현보의말에 곳 좀 신어갈까?』

붉은 길저고리도 모르고 길엔 흥밧우에주저안자 순이는 업는 조이를흘공 동속에서도 눈처럼 흰고무신을 보고는 입이 벌어지며 다해여진 집신을 벗고 새고무신 신어본다

『맛디?』

『옹! 아니 좀 크우다래 겨냥보다 큥걸 왓수다래』

『좀 큰거 사왓가태서……여룸엔 큥거나빠 겨울엔 좀 큰편이낫디』

『그래두 퍽 큰가비』

『좀 큰편 낫대두그래 올한해만 신엇두 아니구—발은 은크쟌나원』

『크믄 두 더허디안캇소?』

『돈은 괘 아따 가튼값이시면 처녀라구 돈가튼데야허구 큰걸 개와디』

『돈은 태요? 그를 큰거낫디 머 참 긴』

순이는 그제야 생각난듯이 댕기재촉을하엿다

『댕기생각두 낫지만 댕긴와시 집올때디리구온거 잇잔은가?』

『아구만나! 시집올때 웬댕기래 잇섯니머? 시집오던날 디리구온건 넘해래돼서 사할만에 도루 보내주디안앗소?』

『아—그랫던기? 난또 오늘 문뜩 시집올때 디리구온 댕기생각이나기에 올라잘돼다 오늘은 댕기갑시 남엇스니 술먹을돈이 생겻다구 막걸리 몃잔걸티구왓디! 난 참깜박니저뻐렷드랫구만 허! 그러니헐수잇나! 다음 당(장)에는 꼭사다주디!』

『여보! 그르케야 놈으 생각을 못해주갓소?』

『아니 생각올못헌거 아니라 잇는댕기야 또사울거 업갓기 그랫디 내가 님자 댕기사오는거 아까와 그랫갓나 그러치안아? 순이』 하며 현보는 순이의 어깨를 휘감엇다 순간 술냄새가 훠얼훨에 부딕첫다。

『아이구 망치해라!』

『망치은 무슨망치! 아모개두 보는사람업서!』 하고 현보는 놀랜호랑이처럼 뗌벼들엇다 순이는 고무신 사다준것만도 다행으로 여겨、아모반항도 하지안헛다 어느듯 열여드레달이 철마재우에、비죽이소삿다 산속은 괴괴하엿다 나무 사이로、싸늘하게 흐르는 달비치 더욱 적막을 도두엇다 숲우에서반짝이는 별들만현보와순이를지키고잇섯다

어데선가、간혹、접동새우름이 들려와고、그것이 끈치면 아지못할 산새새끼 짝을 찻는듯、구슬프게 우는소리뿐이엇다

梅毒大衆醫學講座 第三篇

冷毒や便秘に注意

高血壓과動脈硬化는
梅毒이만흔原因
放任하면危險한病態
治療는베루쓰丸으로

獨逸베루쓰博士

梅毒에걸려第一어려운것은 무엇보다도 潛伏梅毒으로治療를게을리하면第三期梅毒症狀으로 中風과가티혼청혼청하는脊髓癆나筋肉이나骨格을 석히는ゴム腫이든가 痴呆症으로 頭腦가낫버지며發狂하는梅毒症이 언제襲擊할는지모르며또한潛伏性梅毒이더무서운것이다

血壓亢進症

에걸리기쉬우니 어째梅毒이이런症狀을나타내는가하면이것은梅毒이나 食物其他의分解梅毒이混和하야 血液內에侵犯하는結果血液의循環과新陳代謝機能이不調하며 遂히血壓亢進을이르키게되는것인데 다시이血壓亢進에서

動脈硬化症

을이르키며 血管壁을구더지게하는일도잇스며 物件이구더지면弱해지는것과가티血管壁도구더지면 破裂하기쉬웁고 腦의血管이破壞되면은、即時腦溢血이되며 心臟에이르면 心臟麻痺를이르켜 突風的으로 人命을빼앗는것이다

從來이러한

血壓亢進이나 動脈硬化는 美食이라든가 運動不足等이 原因이된다고하나 그것보다도 梅毒性의血壓亢進症이나 動脈硬化症이 쳐신만코 따라서梅毒性腦溢血心臟痲痺로生命을 빼앗기는사람이 非常히만흔것이다 勿論、이러한 併發症을 이르키기까지에는梅毒의病勢도相當히 進行되고잇스나 그러나 極惡한 晩期梅毒을 만들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는것이니

治療가充分

하고보면梅毒菌의撲滅도快速될뿐더러더욱이 요사이가티向寒時節에드러서는 高血壓이나 動脈硬化가잇는사람은반드시 頭痛이나 厥冷이잇고 特히神經痛 류마치스、關節炎等의 疼痛을만들고神經衰弱과가튼 不愉快한 氣分이 되기쉬운고로 各樣의 梅毒病狀을 自覺하얏스면 于先全身的血液淨化를圖謀함이 先決問題일가한다

血液의淨化

는 要컨대 血液中에梅毒菌을업센다는뜻으로 治療法은驅梅毒內服藥베루쓰丸을日常服用함이가장 安全하고 正當한實效를體驗할수잇는것이다。

베루쓰丸은 腸內의細菌이나血液에깁히潛入한菌毒을 體外로排泄하고 또한殺菌作用을發揮하며更新의길로잇끈血液은 新陳이잘되고 新陳代謝의 順調로움으로血壓이自然히나리며 危險한動脈硬化의念慮도업서질것이다。血行의新陳代謝가조흐면은

胃腸等에도

理想的이며 頭腦의明快、生活力의旺盛等 各方面을通해 效果가잇스며 梅毒性의高血壓、動脈硬化는勿論 腦毒、痳毒、瘡毒、遺傳、梅毒、腦梅毒、脊髓癆、神經痛、류마치스、便秘等 모든 梅毒性疾患에 苦悶하는사람은 꼭 베루쓰丸의참된效果를 實驗하라 特히 向寒期에만흔 神經痛、류마치스類도 梅毒性에만흔것이므로豫防手段으로도 꼭本劑의服用을推奬하는바이다。베루쓰丸의販路는 本邦뿐이아니며 멀리海外에까지 飛躍하야 好評을밧는梅毒專門의 權威와 歷史잇는 良劑이다

梅毒과體毒
梅毒性부름에
베루쓰丸

梅毒、體毒、痳毒、橫痃、瘍毒、冷毒、유마치스、脊髓癆、腦梅毒、遺傳梅毒、頑病인皮膚病、梅毒性부름며드름、動脈硬化症、梅毒性便秘等總히梅毒性疾患에良效잇슴

價藥 六日分一圓、十二日半分二圓、廿日分三圓、卅五日分五圓、七十五日分十圓、百六十日分廿圓、二百六十日分(德用)卅圓
送料四十二錢 代引十五錢增

東京市日本橋區濱町三丁目四十番地
發賣元 鈴木日本製藥社
社長 鈴木淸二
振替東京一〇五番 電話浪花八〇番九〇番

代理店 京城 木村、新井 釜山 大黑、森田

評判・大評判
五百萬名總當籤
大懸賞募集中
詳細는近處레-도구리-무販賣店에서問議하시고應募하시오

冬だ肌アレだ さあレートクレームを

レートクレーム

레-도구리-무

오디라

十四日 (木曜)

◇午後六時 이솝이야기 崔鳳信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 方面委員 鄭圭煥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 朝鮮의樂樂 金日坤
◇同八時 伽倻琴倂唱 一、短歌 竹杖芒鞋 二、唱劇調 바라령
◇同八時三〇分 歌手 李元丁 劇「春香」 一篇 —配役—

第一放送

◇同九時 歌詞 一、漁夫詞 二、時調 大笒 杖鼓

야서방……李化三
吉 孫……尹北洋
母……姜貞愛
吉龍의妻……李白姬
長 孫……柳大善
對 酒……姜祥祥
비 계……姜石麟
使 九……高基善

朝鮮演劇協會
演出 吳貞民
効果 効果班

◇午後六時 童話
◇同六時二五分(東) 講座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十五日 (金曜)

◇同八時(東) 淸元
◇同八時二五分(東) 落語
◇同八時五〇(東) 浪花節
◇午後〇時五分 古談 所願成就 白岳
◇同一時十五分 常識講演 遺傳 申翠雨
◇六時 幼年劇「고양이와쥐」 京城旺新兒童友會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指揮 金泰哲
◇同六時三〇分 國語復習(一) 市川榮三
◇同七時三〇分 農村講座(三) 金雄珏
◇同八時(東)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大塚淳

◇同八時三〇分 四節歌外 一、四節歌 二、양류가 三、베틀가 四、금강산타령 五、놀리야 六、오돌독 任彩鳳

第一放送

◇同九時 短篇이야기 柳寅成
細笛 姜德洙
短簫 崔壽成

◇午後〇時五分(城) 이야기
◇同六時(東) 歌物語
◇同六時二五分(東) 講座
◇同七時三〇分(大) 講演
◇同八時(大) 管絃樂
◇八時三〇分(大) 노래
◇同八時五〇分(東) 라듸오風景

十六日 (土曜)

◇同九時(東) 클라리넷

歌謠正調音講 클라리넷 辻井富造 伴奏 伊藤完光 옥간 AK드리오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子女敎育과어머니 徐恩淑
◇同六時 童謠獨唱 一、영감"애보소" 二、겨울밤 三、눈 四、하ㅣ모니카 五、눈 六、말탄놈도껏떡 七、고향의겨울 八、별애기 九、바람이 우우 洪聖恩 伴奏 洪聖恩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童話復習(一) 安興奎
◇同七時三〇分 職業座談會 (가나다順) 朴鄭南權金 東宋基奇維 仁興徹東珏

第一放送

◇同八時三〇分 報念外 一、報念 二、六字백이 三、흥타령 四、개고리타령
◇同九時 音律 靈山會相 朝鮮正樂傳習所員 大笒 朴鍾基 玉 仙

◇午前十時三〇分(城) 家庭講座
◇午後〇時五分(東) 바이올린과
◇同六時(金) 童話劇
◇同六時二五分(東) 講演
◇同七時三〇分(大) 詩吟
◇同七時五〇分(大) 漫才
◇同八時一〇分(東) 講談
◇同八時四〇分(東) 歌謠曲
◇同九時 時事

文藝

人間性의問題와 近代的文學精神 ⑥

金龍濟

「同志로서의 人間」에도 어떠한 態度와 觀點의 部分的欠陷이 잇슬것이며 『敵으로서의 人間』에도 亦是 部分的으로 同情할點이 日常生活에 잇서서

〔一目〕 見解는 現實的事實이다。그러나 白鐵君의 誤謬와 危險性은 『同志에도잇는 部分的欠陷』과 『敵에도잇는 瑣末的好感』을 過重評價하고 그것을 文學者는 第一義的乃至 最先的으로 『人間』의 特徵的性格으로서 描寫하라는 逆說的態度를 主張하고잇다。이러한 傾向을 非難하는것이 林和氏等의 『惡意的中傷』일가? 그런데 白鐵君은 이러한 『人間的個性』이 『最重要한 人間性의地位』이며 이러한 白鐵君의 小主觀에 依한 自然主義的瑣末的傾向이 『새로운文學의 要路』이며 그가이러한意圖下에서 『人間描寫』를 主張하는 그自身이 벌서 文學史的意義를 同伴하고잇는 同時에 그것은 實로 卑俗한 文學의 現實的意義우에 선主張이 아니엿든가!』 라고 大膽스럽게 放言하얏다。

그러나 그의文學論에 잇서서의 『文學史的意義』는 實로

〔一敗〕 北的自然主義와 瑣末退嬰的無批判的 主義에 잇서서만 承認할수잇다 도리어 우리들은 白鐵君의그 露骨한 文句를 들어보자。

『文學者는 決코 苦惱를 避하고 사양하는것이아니라 도리어 積極的으로 自進하야 그苦惱가운데 뛰어들고 거기서 苦惱와어우러저 格鬪할때에 文學者의그 眞實한 自己抛棄에 依하야 도리어 그苦惱를 克服하게되는過程을 體驗하는것이다。그런데 林和氏 그使用한 文句의 消極과積極을 絶望과 孤獨에 關聯시켜서 曲解하야서 『巨大한 自己抛棄의 境地를 自棄하는同音의文句를 取擇함으로써 放棄햇다』는것이다』라고 辯明하고잇다。

나는 이에 二步를 讓하야서 다른方向으로서 批評하야 보고저한다。

以上에 引用한 白鐵君의말은 그말의自身의 意味를 그대로

〔一首〕 肯定할수잇는 進步的 良心的態度이다。그러고 이러한 生活形態는 非但 文學者나 政治家나 其他의 社會人에게도 共通하는 普遍的人生觀이다。그것은 文學者와 社會人과를 또는 文學에잇서서의 客觀的社會性과 人間의 『主體的個性』을 分離하라는 不可能한努力과는 矛盾되지 아니치못하며 그의 論據의 『自己抛棄』를 苦笑치 안흘수업다。

그러나 白鐵君이 그自身의主觀的으로 理解하는 文學者의自己抛棄라는것은 近代的精神과 그의實踐者의 『自己犧牲』의 美德을 말하는것은 아닌듯하다。왜 그러나 하면은 이러한 典型的 生活態度는 政治人에 잇서서만이 아니라 文學者의「文學的實踐」과 同一한까닭이다。

常識化된 眞實한意味에 잇서서의 人生觀의信條를 가진 『自己犧牲』은 그의意義와 機能이 希望的이며 生産的이나 白鐵君이말하는 文句속에든 『自己抛棄』의本質은 社會的個性의 抛棄、人生觀의 抛棄 적어도 此等을 副次的하는

〔一傾〕 向이아니라할수잇슬가? 그러타하면 林和氏가 『自己抛棄』를 『自棄』라고 말하얏다하더라도 無理치안흔 批評이고 白鐵君이 反駁하는 『無智한論理者』도 아닐것이다。

또한편으로 말하야보자。個人主義的個性至上의 文學者가 『自己抛棄』를 한다하면은 그文學者의 全生活的存在와 그로서生産된 文學內容의 人間生活은 社會的의그것도 아니고 個人主義的의 그것도 못될것이다。그의 實踐한 結果로서 林和氏가 말하야하는 『絶望과 孤獨』이 아닐수잇슬가? 그러함으로 個人主義者의 『自己抛棄』는 그의 最初의 觀念과 階級이 『自棄』에 잇다하더라도 그의 過程은 漸次 暗黑的虛無主義에 必至할 自己放棄에 지나지못할것이다。

이 白鐵君의 批評文을 說移할때에 나는 同君이 本紙上에 실린 『휴매니즘과 우리의文壇』이라는 年末評文을 읽고잇다。同君의 휴매니즘에 對한 文學者的態度는 槪論的으로 一言하면 認識치못한 小市民的理解의 圈內를 버서나지 못하고잇다。나는 이 『휴매니즘』의 問題를 꾸준히 硏究하야서 他日에 所感을 發表하겟스며 그時에또다시 白鐵君의 『휴매니즘』의對한 小市民性을 指摘하며 아울러 이批評의 不充分한點을 補足하고저한다。(完)

一漢詩一

題松

押松

桐岡 考選

三等之七

忠北堤川郡邑里 梅隱 嚴允燮

兒時種得一盤松
我步星星衛少容
生來故國風霜翅
老去仁天雨露濃
根蟠奇石疑蹲虎
影倒空潭認臥龍
莫歎終爲浮世棄
良材留待聖時逢

茶故事補遺 (上)

湖岩

過去는 어쨋든지 現今에 와서 飮茶의風이 아미 消滅된것만은 否認할수업는 事實이다。

우리네의 日常使用하는 言辭중에 茶禮이니 茶鍾이니 하는 茶具의 物名이 오히려 남아잇서서 옛날 飮茶하든 痕跡을 傳할뿐이다。

物名만이 아니라 地名에도 茶泉茶村가튼 茶傳說에 얼킨곳이 잇거니와 京城의 茶坊골도 或은 옛날 茶房의 訛轉이 아닌지도 모르겟다。본대宮中에 두엇든 茶房이 李朝初 어느時期에 現茶坊골의 位置로 옴긴것이 아닌가。그러나 이는 아모 根據업는 나의 漠然한 想像에지내지못한다。

物名과 地名外에도 우리네年中行事의 하나인 茶禮가튼것은 茶故事의 遺風餘韻이 深入習及하야 거의 鮮人과는不可分할民俗의一部를 일우고 말엇다。

그러면 茶禮란 무엇인가 하면 名日에 死者를 祭祀하는 略禮라고 朝鮮語辭典에는 적혀잇다。그러나 나의 본바에 依하면 死者를 祭祀하는 略禮뿐이 아니라 生者를 供待하는 略禮도 역시 茶禮라고 稱한다。

李朝時代에 中國使節을 마즐때는 依例로 먼저 茶禮를 行하엿는데 오늘날 말로하면 來賓에게 飮食을 드리기前에 茶菓를 내놋는 셈이나 그實은 茶菓가 아니라 略式의 宴應이엿섯다。

壬辰亂中에 義州行在에서오락 가락하는 明使를 接見할때마다 「行茶禮」 또는 「仍行茶禮」 等의 文字가 實錄에 보이거니와 丙子亂後에 볼모로가든 昭顯世子께서 잠간歸覲하게된바 그때 護行한 淸將에게 對하야 世子宮소 그客館에 나가 茶禮를 行한일이 잇섯다。

甲申正月二十二日。王世子展謁宗廟。仍往南別宮 見護行將。行茶禮而罷。

南別宮은 오늘날 朝鮮「호텔」터에잇든 當時淸將의 宿所이엇스며 茶禮는 略式의 飮食을 意味함이엇다。

新春文藝二等當選作品

戲曲 晩景 (七) (全二幕)

韓相稷

金女 (昌奎를보고서)글세 어쩌자구들 그러십니까、온보다 참입니다

鳳玉 난 오늘 나갈태요 아우님、영례를좀불려다 주우

金女 (昌奎에게) 이걸보세요 여자가 세상에나서 조흔 남편어더 아들딸나코 잘살자는것이지 이러케 욋간불듯하고 으르렁거리며 살자구야시집이나 개보듯 하겟서요 아들딸남내가 그러케 하거든 왜? 호령을 못하세요 아모리개모라도 아버질 보아서 그러케못하는 것이랍니다

昌奎 모두가 개들이 하는일도 오른일이고 저사람이 하는일도 오른일이지 어느편이 잘못이고 어느편이 잘못안이라고난 못하겟소이다

鳳玉 그것봐요 (울면서)아이구!내신세야!

金女 그러케 말슴을 하시는데가 어데엇서요 아무튼 첩엽는자질내가 잘못을 할테지 그래 어형님이 조고만입에라도 잘못하시는게잇슴니가 이형님이 하는일은 다 영감님 모시고 자식들 데리고 잘살려고 그러자는거니까

鳳玉 그러치 안쿠야 이런고생을 왜한단 말이요

昌奎 정말 그래우

金女 그래라 [illegible] 그러니 재산이나 가사일절을 꽉 밋고 맷기시는게 조치안으세요

昌奎 내가 바본줄 아우 언젠나도 당신네들 속을 다아럿소 (안으로 드러간다)

鳳玉 (金女와鳳玉은 어이어시섯다) 아이구 나는 못살겟소

金女 (분개하야) 그러케 말하는데가 어듸 잇담! (鳳玉에게) 형님 드러가십시다 (끌어단여 방으로 드러간다)

食母 (炳燮에게넌즛이) 저러케 알뜰스런 말슴을 하는구려

炳燮 가만둬 제가 바루될나구

食母 나는 아버지께서 솔깃이 속아넘어가실줄알고 혼났구려

炳燮 다 아버지 잘못이야 그저 우리만 미워하지안소 글세 그여편네만 꽉 미드섯다 가는 형당지실게야

食母 그러케나 말아지요 炳燮이 말이 약하세서 탈이지 (울며)저여편네가 나오는 구려 (金女에게) 좀 진정하세세요

金女 그(성을내며)들으겟소 어떠케 되든지、그래어떤 고약한 집안이 어듸잇드란 말이요

食母 아이구 참 드러가 봐야지、내가정신업시 섯네、

金女 (마루에안즈며) 여보 글세 하루잇슬 아니구 이게무슨짜이요 어머님 공경하고 구순하게살어요、

炳燮 아즈머님 뭣때문에 매일와서 어집 참견이시유

金女 그게 무슨 말이요 어머니하구 친구간이니까 잘되게하느라고 그러지 (무엇이 생각난듯이)참 여보그런말은 다그만두고、딴 이야기나 합시다、저、내가 혼담이 잇는데 드러주겟수?

炳燮 먼데 그래요

金女 다른게 아니라 조혼、말이야 꽉 드러줘요 저 혼인이야긴데 말야

炳燮 그런말은 그만둬요 나시집가는게야 내몰할가바 걱정이시우

金女 연애결혼두 조치면 중매결혼두 조타우 오늘 보다시피 어머니하고 작구 쌈이나하고 살면 멋하우 내 말하는것만 해결돼노면 다시는아무일두 업슬께야 어머니하고 울바하고도 조화 지실껀데 —다른게 안이라 영월이 잇지안우 다 알겟지만、그사내가티 순하구 착한사내가 어듸잇수、그전가티 굴지말구 인제부터는 친하게 굴어요、

炳燮、듯기실혀요 그래 내가 어떠케 뵈길내、그 못난이하고 문질 못치시는게시우

金女、그런말은 말구、사내고 여편네구하면 아무허물이 업다우、

炳燮 그런말을 다시 할려거든 우리집엘 아야 오질 마러요 그래 의붓올빠하고 혼인하는법도 잇서요?

金女 그런것이야 무슨상관잇수 남이야 머래든지 내말은 그러케만되면 이집안이 편안하게되구 또、당신네 두사람도 조흘께니까 그래서 그러는게 안유、

炳燮 듯기실혀요 그만가요 아주머니는 두쟁이나 중매쟁이유 (이러나 자기방으로간다)

金女 여보우 그러케 성낼꺼야 잇수 한번 말을 돌려 생각해보구려 어머니와 형애만은 서로 딴몸들이아니우 이왕그런것을 작구 부대져 봣자 할것이 형애가 그러케만되면 어머니쪽으로 보면 둘다 내 자식이되구 마니까 다시는 아모말이 업시되구 말께안유

炳燮 (쏘아내며)그런건 난몰라요 우리오빠한테 무러보시구려 어떠케대답하나? (드러가버린다) (永弼이 들어온다 술이 잔득취햇다 動作이나 생김생김이 亂暴에 亂暴다 침을 게게 흘리고 양복바지는 배스대기까지 내노왓다)

永弼 어머니 계서! 흥! 내가 이집에 오기만하면 쫏처 내지 오늘은 가만만햇다 어서나와

金女 아이구 아드님 오시우 (房에다대구말한다) 형님

永弼 왜지 우리 어머니는 벽속에서 죽드록 일만시켜먹는모양이지、어머니(소리를질른다)

鳳玉 아이구 너오니 어떠커냐 가 지금오니 어디연회가 잇썻니 이러케 취햇게

永弼 연회가 먹는게유 연애말이우、

鳳玉 얘야 그게무슨소리냐、지금네가 다녀오테가 연회지머냐、(金女에게) 애 좀 봐 술만 취하면 아무것두 모른는것처럼 한다우 (자식의 無識을 감출려고 애쓴다)

永弼 그래! 이집 연애생 머니! 집에하고 연애하려왓소! 어

鳳玉 그런말은 잇다가하고 어서 올라오너라、

金女 아드님좀 드린다구 [illegible] 형님、

學生作品

隨筆

深夜斷想 (上)

世專 李昌植

밤은 소리업시 기퍼간다 喜과 雜踏과 狂亂의 騷中에서 허덕이던 長安의거리도 疲困한꿈속에 잠긴듯 周圍의空氣는 곳업는 靜寂과 沈默을싣고 時間은 무겁게 흘러간다

죽엄과가티 嚴肅하고 고요한 밤이다 잘時間도 지낫것만 웬일인지 잠은안오고 精神은 더한층 맑어간다 밝게서 모라치는바람이 잇다금식 窓門을 두다리며 지나가고 보기에도 차겁게 느껴지는 새파란달빗이 찌저진窓구멍으로 바늘바늘 쌀며 새여드러온다 冊床우에 팔고비를 기대고 마즌편바람벽을 精神업시 바라보고 잇는 내마음속에는 孤寂의적은새가 어대서 날러왓는지 삽분 날러와젓다

오! 孤寂! 껴안고십도록 그립고도 情답고나!

孤寂한 느낌이 고요히 가슴속에 피어오를때 마음은 곳업는 人生의 애닯음과 외로움을 싯고 지향업시 헤매고 이붓어미를 둔 어린子息의心情과도가티 서러운感情에 북바처서 눈물지우기도하건만 그래도 나는 孤寂한時間을 갓고십다

孤寂은 깨끗한瞑想을 가저오고 瞑想은또 苦惱의채쭉을 準備한다 그러나 고요한時間에孤獨과 寂寥를 부등켜안고 마음가는대로 느껴보고 생각해보고 또 그럼으로 因해서 苦惱의아픈매를 맛는한이 잇더라도 나는 내마음속에 안개벗가티 朦朧하나마 고어떠한 아름다운詩境이 展開되는것가티 느껴지고 아지못할 一種의 藝術的情緒의 香臭가 그윽히 품겨오는것가튼 感情을 느끼기도한다 그러기때문에 나는 孤寂을 사랑하고사프며 또 그것을 한개의 藝術의 境地라고까지 부르고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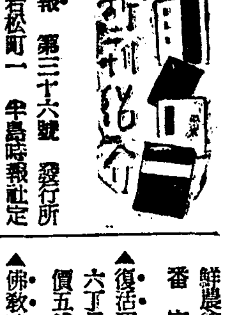
나는 지금도 이처럼所重한 孤寂이다시 내窓으로부터 다라나버릴것을 念慮하며 내품에 힘껏 抱擁한채 가만히 눈을 감아본다 마음은 유난히도 서글퍼지고 孤寂한느낌은 더한층새롭게 뼈속까지 숨어드는것갓다 그리고새삼스럽히 이런 時節이 追憶된다

힌눈이 펄펄 날러서 뜰과 집웅을 하야케덥고 荒凉한滿洲벌판을 거처서 휘차게 내닷는朔風이 뼈만남은 앙상한나무가지를 싯줄굿게도 울려주는겨울밤에 히미한등잔불을 에워싸고안저서 할머니에게옛이야기를 졸르던 그어린날이 마치 그무슨 童話나 傳說속에서 보는場面과도가티 情답게 머리속에 떠오르며 限업시 그리워진다

오! 귀엽고도 天眞爛漫한 어린時節이엿다 惡濟업는童心이 철철 넘처흐르고 複雜한世上과는 因緣이먼 世界에서 아름다운꿈만을 어르만지고잇던 時節이엿다 다시 도라오지못할 옛時節이여니하니 더한층 그립고나!

그러나 時間의 수레바퀴는어린童心을 좀먹기始作하엿고 湖水흘가티 잔잔하던 純眞한 마음속에는 어지러운 世上의그림자가 어른거리게되엿다 人生의 밋바닥에서 虐待밧고 侮蔑밧는 그러한 切迫된環境속에서 자라나지는 안흐면서도 어름가티冷酷한 世間의人心과 現實의 가지가지의 悲劇的事實에 부다칠때마다 얼마나 어린가슴에 아픈못을 박엇스며 또 그것이모두 무엇때문이라는것을 아럿슬때 어린주먹을 부르쥐고 그를 咀呪하기 몃번이엿던고? 이러케 날이가고 달이가고 해가감을따라 어렴풋하게나마 世上의輪廓이 떠오르는것가티 느껴젓다 그리하야 한때는 나도 이제는 世上을알고 社會와 現實과 歷史를 알엇다고 傲慢하게도 自處한때도 잇섯스며 또 自己에게 賦與된 그어떠한 使命을 히미하게나마 把握하엿다고 생각하면서 그使命을 다하기를 約束하고 良心的으로 살기를 스스로 盟誓한적도 한두번이아니엿다。그리고 때를따라 空間과 時間과 人間의立體圖우에 한點을 그리고잇는 내自身의問題와 社會와人間의 錯雜한問題를 敬虔하고沈着한態度로 思索해볼수잇는 嚴肅한時間과 情熱을 가지기도 하엿다

그러나 이瞬間에잇서서 赤裸裸한 내그림자를 容赦업는 批判과反省의 거울속에 비추어보앗슬때 조각조각 깨여진 보잘것업는 人生의破片이 無秩序하게 뒹굴고잇는 아! 얼마나 悲慘한내그림자이더가? 내몸을도마우에올려노코 어름가티싸늘한 理智와良心의칼날을 瞬間만이라도 빌려서 껍질을 한겹두겹벗겨본다면 거기에는 벌서 傲慢한自負心도 업고 그무엇을 追求하고저하는 情熱도업고 다만 電磁石兩極과가티 相剋된 矛盾과葛藤이 흐느낌과도가티 엉크러저잇슬뿐이요 銳利한칼날에 쏘다저나오는피는 正義와良心에 물드른 鮮紅色의피가 못되고 利害와功利心에 저즌 검고도醜한 피뿐이아니던가?



▲半島時報 第三十六號 發行所 平壤府若松町一 半島時報社 定價一部五錢

▲基督敎報 第八十九號 發行所 京城西大門町八九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一五九〇番 定價一部五錢

▲協實 第三號 發行所 京城府栗園町一八二 協成實業學校校友會(非賣品)

▲朝鮮農會斡旋通報 第七十七號 發行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 朝鮮農會斡旋部 振替京城二〇三番 定價一部六錢

▲復活運動 一月號 京城府鍾路六丁目二〇ノ九 復活社 定價五錢

▲佛敎時報 第十八號 發行所 京城府舘洞町五ノ三七 佛敎時報社 振替京城二三八四三番 定價一部五錢

▲高麗公論 新年號 發行所 開城府東本町 高麗公論社 振替京城五〇二九番 定價一部五錢

▲게자씨 一月擴張記念號 發行所 平壤府新陽里六五의六 게자씨社 振替京城五一三一番 定價十錢

科學

軍用毒瓦斯에 對하야

—그性能과 防護法·中毒救急法—

金正炯

最近 國際的緊張으로보아 各國의 軍備競爭은 實로 激烈化하얏스되 特히 空軍擴張만은 一層格外하게되엿고 또는 事實에 잇서서도 空軍은 加速度的進步를 보아 近代科學的武器를 만히가진 部隊로 一般은 認識하게되엿다

그原因과 實例에는 歐洲大戰時에도 만히잇섯스나 最近 「伊太利」와 「에디오피아」戰爭時 伊國이 偉大한 效果를 본것으로 짐작할수잇다 따라서 今後戰爭에는 敵空軍으로 하야금 爆彈、燒夷彈、毒瓦斯彈、細菌彈等의 投下洗禮를 바들것으로 覺悟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米國에는 無給油로 九千키로를 飛行할수잇는 飛行機가잇고 伊國에는 八噸의爆彈을 搭載할수잇는 飛行機가잇다 이러한것은 例外라할지라도 一噸의爆彈을 실고 三千키로를 飛行한다는것은 그다지 困難한일이 아니다 「마니라」로부터 東京 大阪等地또는 「우라디오」나「上海」로부터 京城 平壤等地에 飛來한다는것은 極히 容易한일이다

그러나 都市住民全滅에는 一平米突에 十瓦의 毒瓦斯彈이 必要함으로 京城가튼都市라면 約百噸되야하겟는대 이것은 [illegible] 飛行機가 一時飛來하야 毒瓦斯彈投下로써 京城이 全滅이라고 할지라도 그五分之一或은 [illegible]

그一部分의 毒瓦斯가 二三日乃至約一週日間 殘留케되는수가잇슴으로 [illegible] 物破壞 火災를目的으로한 爆彈 燒夷彈과 人生殺傷의 重要性을 完全히 度外視하고 人命殺傷을 目的으로한毒瓦斯彈 細菌彈等으로되여잇다

以下는그毒瓦斯彈에對한 一般性狀、防護法、中毒者의救急法等을簡單히述하야 今後不幸히空襲이잇슬時는 參考가되엿다면 幸일가한다

毒瓦斯의一般性狀

戰爭毒瓦斯라면 그種類가 數많으나 軍隊에서使用하는 毒瓦斯를大別하자면

一、窒息性毒瓦斯
二、腐爛性毒瓦斯
三、催淚性毒瓦斯
四、噴嚏性毒瓦斯
五、中毒性毒瓦斯

等으로되여잇다

一、窒息性毒瓦斯 (1)쿠로-르 (2)호스겡 (3)디호스겡

窒息性毒瓦斯를 사람이 吸入케되면 호흡吸入器系統에 作用하야 肺臟에傷害를주어窒息케하는것이다

(1)쿠로-르

쿠로-르는 常溫帶黃綠色의 氣體이나 戰場에出現될時는 帶黃綠色乃至白色의 特異한刺戟臭를 가진 [illegible] 上下全氣道에 [illegible] 다음에 肺臟에 作用하야 充血、氣腫、肺炎等을 이르키되 그症狀은 極히 빠르다 이러한 生理的作用을가진 毒瓦斯가 周圍에 散在하게될時는 미리 防毒面이라는 裝具로써 呼吸器에까지 到達하기前 吸收劑라는 藥品을 防毒面에 應用하야 豫防하는것이 가장 良策이다 이쿠로-르에對한 吸收劑라는것은

(가) 活性炭
(나) 活性炭、소-다石灰混合
(다) 次亞硫酸소-다

等이며 此等藥劑를 防毒面어떤部分에 貯置하야 毒瓦斯가氣道까지 到達하기前에 그中毒을 防止하는것이다 그리하는同時에 그 散在된 毒瓦斯에 對하야는 防毒面을 扮裝한사람 萬若腐爛性毒瓦斯라면 防毒面外에 防毒衣 防毒手袋 防毒靴等을 扮裝한 사람으로하야금 消毒에 當務케하되 쿠로-르에 對한 消毒劑로는

(가) 次亞硫酸소-다水溶液
(나) 알카리水溶液 (苛性소-다 又는 炭酸소-다水)
(다) 水

等을 使用하야 毒瓦斯撒落地附近一帶 又는 建物에 撒布하야 毒瓦斯를 消毒劑로하야금 中和 即 除毒케하는것이다。

學藝面新設欄

學生作品欄

中學校以上專門學校大學等의 在學生으로서 硏鑽의餘暇에 지은佳作을 收容하고저 學生作品欄을 新設한바 硏究論文、讀書後感、紀行文、書簡가튼것을 考査採錄하되 佳作은 薄謝를 贈呈하겟스며 氏名과 在籍校名을 明記할 事

紙上顧問欄

在來의 讀者社交欄을 廢止하고 紙上顧問欄을 新設하는바 이것은 讀者中에서 日常生活에 必要한 質疑를 葉書로 簡單하게 무르시면 本欄擔任記者가 一一히 親切하게 解答하여드리기로 되엿다。但 同一한 性質의 問題는 一欄에 答함을 原則으로함

朝鮮日報社學藝部

泰川

泰川官公署各團體職員一同

西城水利組合 組合長 吳晶燮

泰川郡泰川面旺井洞 藥劑師 李應吉

泰川郡邑內 東一醫院 院長 安觀鎬

泰川郡長林面取奧洞 春山醫院 內務員 白炳[illegible]

泰川郡長林面長興洞 有志 徐鼎三

泰川郡江東面龍成洞 三一醫院 院長 李[illegible]

泰川郡東面鶴塘洞 金用實

泰川郡江西面德坪洞 鑛業 洪暉鳳

泰川面北安洞 醫師 李東殷

南面松洞 朝鮮耶蘇敎監理會牧師 [illegible]

碧潼

平北碧潼邑 四同商會 金京龍 電話二二番

碧潼郡吾北面 高奉陳 劉賢俊 劉致漢

碧○郡 吾北鑛業合資會社 劉興山

平北碧潼郡吾北面 吾北鑛業合資會社 用達部

平北碧潼郡吾北面 吾北鑛業合資會社 職員一同

碧潼郡大平面下平洞 金國信

碧潼邑內 公醫 金洛英 電話一六番

碧潼郡廳 職員一同

碧潼警察署

平北碧潼 貿易商 四同商會 電話二三番

碧潼郡農會面事務所 職員一同

碧潼郡衛生(?)長 堅榮吉

碧潼邑內多田宮部右側 大同旅館 主 崔宗彬

碧潼面職員一同

碧潼邑內 面協議員 金明河

平北碧潼邑內 海東商會 金官興 電話二三

碧潼邑內 林業 金炳淳

碧潼郡大平面陽平洞 金澤櫓

碧潼邑內 碧潼協成會

朝鮮平北碧潼邑內 綿布雜貨 織物食料 煙草酒類 昌海商店 主 公昌海

碧潼邑內 四同印刷所 主 張如絹 電話二二番

碧潼邑內金融組合 青森秀雄

碧潼邑內 車斗煥

大平面事務所 職員一同

碧潼邑內 理事 金秉洞

碧潼邑 海東旅館 主 金[illegible]

碧潼面事務所 金乃玉

碧潼郡農林保護區 兒玉武治

碧潼邑內 公立普通學校

朝鮮平北碧潼邑內 製材所木材商 石油雜貨 食鹽貿易 同盃商會 振替口座京城七三四六 電話一八番

碧潼邑內 金物木材雜貨 同興商務組合

碧潼邑內 雜貨食料 九加商店 電話六番

校西面 面長 崔鶴彦

碧潼邑內 朝日旅館 主 成榮洋

碧潼邑內 文得友

平北碧潼邑內 鴨江商店

農民共生組合

碧潼邑內 金[illegible]

碧潼邑內一洞 崔宗[illegible]

碧潼郡內 李倚允

碧潼郡農會面 金秉鶴

碧潼郡雲時面雲市 金澤祚

碧潼市 崔信元

明川

明川花台市 許勳哲 許昌瑞

明川郡花台市 司法書士 聯合事務所

明川漁港 劉舜七

明川荷師市 下古面漁業組合

明川花台市 委託貿易、倉庫營業 米油特約 漁浦取扱店 朝鮮郵船會社 金鍾河 李泰洙

明川花台市 中央商會

明川漁港 李學一

明川花台市 公醫 張彰奎

明川花台市 洪俊傑商店

明川花台市 圭鶴商店

明川漁港 李泰勳

明川漁港 許東權商店

000771

謹賀新年

瑞山

忠南泰安
泰安商會
振替口座京城一五五二四番
朝鮮日報瑞山支局顧問
主 韓東璧
監務 韓秉睦
金完吉
朝鮮自動車 運送業
科目 綢緞布木 穀物肥料

同商會商品部(泰安市)
主任 李仲均
店員 金淳權 朴鶴仙

同商會(瑞山市) 綢緞布木 附帶營業
大昌商會
主任 金塡
店員 姜錫訓 趙井元

同商會 自動車部泰安營業所(泰安市)
邊貞穆 金榮直 白泰欣 朴鴻運

同商會 自動車部瑞山營業所(瑞山市 電話三六番)
主任 韓秉旭
高龍學 朴魯秉 池達河 全正甲 趙明煥 韓基性 全三甲 韓昌俊

同商會自動車部各停留所
唐津停留所主任 三共商會 兪鎭遠
高大停留所 孫永鉉商店
天宜停留所 美湖釀造場 金東信
聖淵停留所 三巨里 朴漢郁商店
浮石停留所 文昌云商店
梨坪 仁坪停留所 泰安市 ㊁精米所 金二煥
舊島停留所 仁川汽船出張所
漁松停留所 曹莫乃
鳴川取扱所 具達會

同商會運輸事業營業路線
一、泰安唐津間 六十粁
二、泰安瑞山舊島間十六粁(仁川汽船旅客連絡)
三、瑞山漁松間八粁(同上)
四、瑞山鳴川浦間十三粁(營業出願中)
五、泰安安眠島間三十二粁(營業出願中)(仁川、朝鮮海洋社旅客連絡)

同商會自動車運送事業
一、自動車旅客貨切事業區域 忠南一圓
二、貨物自動車貨切事業區域 忠南一圓

忠南泰安 有志 白南復

忠南瑞山邑內 楠戶發動機 ミスタ發動機 各種農機具 各種發動機附屬品 販賣及修繕 東洋機械貿易
瑞山出張所
本店 京城府青葉町三丁目九八 電話龍山五六四番
主 金洛興
現金販賣 月賦販賣

快速船毎日航海 貨客親切迅速取扱
仁川汽船株式會社
瑞山出張所
電話三六番

仁川港町
仁川瑞山線 仁川海州線 仁川唐津線 其他近海各線
朝鮮海洋社
社長 島崎彥次郎 電話仁川一〇二、二三番

忠南瑞山港代理店 毎日貨客運輸 客取扱親切迅速
㋟運送店
支配人 中島茂

瑞山郡海美市
海美自動車組合
專務 申斗鉉

瑞山郡海美面休岩里 有志 申奎鉉

忠南瑞山市 百貨店
金子屋
洋品雜貨部 洋靴製造部 洋服調達部 既成服部

忠南泰安 有志 李時雨

瑞山郡安眠面協議員
大角重太郎 片茂松 朴準慶 朴準輝 金成淳 朴炳求 牟炳昊 姜泰愚 朴尙圭 片準宇 李鍾憲

忠南瑞山郡音岩面 瑞山鑛業株式會社

瑞山郡音岩面旂浦里 有志 李澤原

音岩面富長里 有志 柳澤鎬

瑞山郡安眠面古南里 有志 崔東高

忠南瑞山郡高北面 有志 崔九鏞

瑞山郡浮石面芝山里 有志 金永祺

忠南泰安 泰安親睦稧

瑞山郡浮石面大丙里 金永達

辯護士 李寬洙
事務員 金生植

瑞山公立普通學校長有田要吉 同校職員一同
仁旨公立普通學校長伴內三夫 同校職員一同
浮石公立普通學校長今井捷一 同校職員一同
八峰公立普通學校長江藤節男 同校職員一同
附設機墻簡易學校 宮田朝海
聖淵公立普通學校長淸水久夫 同校職員一同
富城公立普通學校長 眞鍋留次郎
同校訓導 金光吉
大山公立普通學校長岡田久男 同校職員一同
音岩公立普通學校長奧松親義 同校職員一同
余美公立普通學校長中崎竹松 同校職員一同
同校附設新昌簡易學校 鄭聖謨
海美公立普通學校長片山近義 同校職員一同
高北公立普通學校長 飯田富之助
同校訓導 李仲
調琴公立普通學校長金鼎泰 同校職員一同
貞美公立普通學校長勝谷光三 同校職員一同
瑞山公立小學校長 得德山 同校職員一同
瑞山農業實修學校長 松田一雄
同校敎諭 松元正雄
海美公立小學校長稻永清茂 同校職員一同
安眠島公立普通學校長 杉原彌市郎
同 校職員一同
南面公立普通學校長 稻月巽
同校職員 金完洙
泰安公立普通學校長吉田直太 同校職員一同
近興公立普通學校長田中秀稔 同校職員一同
所遠公立普通學校長松久保愼 同校職員一同
同校附設茅項簡易學校 李昌俊
遠北公立普通學校長 菅原仲夫
同校職員 李圭容
梨北公立普通學校長 李元模 同校職員一同

忠南瑞山郡瑞山面事務所職員一同
仁旨面事務所職員一同
浮石面事務所職員一同
八峰面事務所職員一同
聖淵面事務所職員一同
地谷面事務所職員一同
大山面事務所職員一同
貞美面事務所職員一同
大湖芝面事務所職員一同
音岩面事務所職員一同
海美面事務所職員一同
高北面事務所職員一同
雲山面長 尹承秀 書記 韓庚源、柳錫圭、朴昌來、柳寅茂
安眠面事務所職員一同
南面事務所職員一同
泰安面事務所職員一同
近興面事務所職員一同
所遠面事務所職員一同
梨北面事務所職員一同
同遠北面事務所職員一同

忠南瑞山 朝鮮 西洋 中華料理
君乃屋
主 中山キミノ

瑞山郡梨北面馬山里 有志 賈秉玉

忠南瑞山邑內 自轉車及部分品 小賣卸
華林自轉車商會
京城ミタマキ輪業部一手販賣

忠南泰安邑內 貨物運送 荷物運搬
華林運輸社

瑞山郡梨北面馬山里 有志 賈秉俊

忠南瑞山 柳聖植

忠南瑞山市 綢緞布木
瑞山婦人商會
各種石油、諸油、仁川英油組合瑞山販賣所 李鍾玉 廣龍顯

忠南瑞山 和洋雜貨 紙物文具
瑞一百貨店
瑞一紙物舖
主 金一出

仁川港町
使用船一切大改造大革新 近海日各處快速航海 毎日
忠南汽船株式會社
社長 中条榮藏 電話仁川八三二四番
正直一貫、顧客本位 貨客親切迅速取扱 運賃大特安 絕對他社追從不許 貨物、旅客
瑞山總代理店 ㊈三六運送店
主 邊貞潤 電話二七番

海美市 海美酒造場
天宜市 美湖釀造場 金東信
高北面 高北釀造場 金義培
雲山面余美市 雲山釀造場 尹命秀
雲山面新昌里 三星釀造場 金龍煥
音岩面 音岩釀造場 崔中鳳
泰安市 共榮社 藥酒濁酒 佳香眞味 泰安釀造場
浮石面倉里釀造場 田聖潤
大湖芝釀造場 尹月文
安眠面中場里釀造場 牟炳昊
安眠面古南里釀造場 李鍾憲
瑞山釀造場 羅昌憲
瑞山釀造合名會社 磯田厚
梨北釀造場 趙泰鎬
所遠釀造場 李圭璜
院坪里釀造場 李求龍
聖淵釀造場 朴容達
地谷釀造場 尹世雄
大山釀造場 金東潤
浮石釀造場 朴云弼
八峰釀造場

瑞山郡浮石面芝山里 有志 柳炳奭

泰安商會支店 大昌商會 事務 金塤

忠南瑞山市 中華料理 賓樂園 主 林少東

忠南瑞山邑內 司法書士 金谷若太郎 電話十六番

瑞山郡高北面 有志 崔起鏞

忠南瑞山郡安眠島 安眠郵便所 所長 金文俊 外 所員一同

忠南瑞山邑東門里 大正生命保險株式會社 日本敎育保險會社 瑞山出張所 所長 李廣舜 外 社員一同

忠南瑞山 常春醫院 院長 洪憙裕

忠南泰安 青鳥洋服店 主 金胤錫

音岩面新莊里 洪淳珏

瑞山郡農會

瑞山面瀣石里 有志 崔柄乙

瑞山郵便所長 川瀨渡

瑞山郡高北面 有志 金東璡

瑞山面東門里 李鍾益

忠南瑞山郡安眠島 株式會社麻生商店 安眠島林業所

瑞山面東門里 金相演

瑞山郡音岩面新莊里 張重煥

瑞山面東門里 精米 穀物貿易 崔漢鏞

忠南瑞山邑 ●朝鮮運送株式會社 京南鐵道定期トラック取引店

忠南瑞山市 禮興時計店

忠南瑞山市 瑞山ゴム商會 主 李命福

瑞山郡高北面揚川里 有志 趙東元

瑞山郡音岩面駐在所 秋成鼎 吳順寬

瑞山郡高北面 有志 崔辰鏞

音岩面塔谷里 林在鎬

安眠島 朴炳南

株式會社 東一銀行 瑞山出張所

忠南泰安市 各種自轉車 販賣及修繕 東西實業 河生龍 自轉車店

瑞山郡泰安 金融組合職員一同

瑞山郡泰安面南門里 有志 金圭恒

瑞山郡遠北面陽山里 片倉生命保險湖西監督所長 文璋彬

忠南瑞山 朝鮮料理 瑞山館
主 金生植
妓生 李中月仙 同 金桂月 同 崔花仙 同 崔桃花 同 趙菊香 同 朴一枝紅
新築落成 優美客室百名以上 宴會室完備

忠南瑞山 朝鮮料理 明月館
主 徐光先
妓生 金牧丹花 林景玉 朴瓊淑 李玉桃 車玉香 林花仙
新築落成 優美客室百名以上 宴會室完備

瑞山郡梨北面 有志 趙喆鎬

瑞山郡泰安 有志 孫昌浩

忠南泰安 有志 尹秀炳

瑞山郡浮石面松岩里 金成會

瑞山郡安眠面長谷里 有志 姜泰愚

瑞山市 瑞山金物店 金學祚

瑞山 川端商店 電話三十一番

瑞山穀物檢査出張所 所長 姜順泰

浮石警察官駐在所 部長 木村正雄

海美面鷹峴里 有志 申泰利

海美面鷹峴里 有志 李敬熙

瑞山樂隊 隊員一同

瑞山 李龍基

音岩 久保浩太郎

瑞山有志 淺見六七八

仁旨有志 柳泰鎬

瑞山有志 上島馬之助

音岩有志 柳元根

瑞山邑 韓百熙商店

高北 趙炳賢

南面 宋基洪

近興面 崔南鍾

梨北 玄千實

所遠 蔡正猷

忠南瑞山郡高北面大寺里 金聲煥

忠南瑞山邑內 싱거ー미싱 瑞山分店 主任 韓相元

瑞山郡雲山面佳佐里 有志 柳命魯

忠南瑞山邑內 寫眞完備 美術寫眞 研美寫眞館 主 張東安

忠南瑞山 有志 島村仁助 電話二十九番

忠南瑞山 有志 小田與市郎 電話二十四番

瑞山印刷所 電話二十二番

忠南瑞山邑內 陶磁器 金物 趙元孫商店

忠南瑞山邑內 司法書士 兪壽孫

瑞山郡海美邑內 司法書士 金起寅

忠南瑞山邑內 司法書士 兪鎭綸

忠南瑞山市 各種自轉車及附屬品販賣修繕 三省自轉車店

忠南泰安 至誠醫院 [illegible]

忠南泰安 浩生醫院 白[illegible]

忠南泰安 司法書士 金[illegible]

瑞山郡泰安面 東門里第一區振興會

泰安郵便所長 鹿戶次郎

瑞山 赤井實晃

千代田生命相互會社 瑞山駐在社員 田泳敎

瑞山市 魚鹽商 果物 永信商會 田鎔鎭 田甲鎭

海美警察官駐在所 部長 染村三次郎

瑞山邑內 司法書士 柳根稷

忠南瑞山邑內 新昌堂乾材局

忠南瑞山邑內 司法書士 尹玟用

瑞山郡所遠面新德里 李圭玹

梨北 田在鎭

梨北面 李起商

所遠面 趙載吉

忠南泰安 金應漢商店

泰安 金興泰

泰安 元[illegible]商會

泰安 金[illegible]

忠南泰安 李[illegible]商店

忠南泰安 [illegible]

忠南泰安 司法書士 李[illegible]

忠南泰安 司法書士 金[illegible]

忠南泰安市 和洋雜貨 有名商業 [illegible]

泰安郵便所前 華陽[illegible]

海美 田中穰

安眠島 姜鶴秀

瑞山 鄭成玉

瑞山 李錫煥商店

忠南瑞山邑內 司法書士 尹世[illegible]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瑞山支局
支局長 申恒均
顧問 韓東璧
顧問 羅昌憲
顧問 田泳爽
顧問 朴友性
顧問 洪憙裕
支局員 白南章
寫眞班 尹道俊 (共榮寫眞舘主)
寫眞班 張東安 (研美寫眞舘主)
映畵部 李根煥
泰安分局長 金東彥
同 局員 金仁奎
海美分局 金漢植
高級映畵 定期常設 同上 映畵社

順

順天金曜會

順天郡廳職員一同

順天郡農會

順天邑本町 シンガーミシン會社 韓鍾煥

順天邑 朝鮮料理 尙印館 金守養

順天邑內 大邱旅館 電話 番

順天郡雙岩面平中里 徐丙寬

順天邑事務所

順天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順天公立農業學校

順天邑榮町 藥種 貿易 天和堂藥局 姜大弘

順天邑榮町 順天入齒院 崔晟圭

順天邑 東亞婦人商會

順天邑榮町 和信商會

順天酒造組合

順天邑 恩泉堂藥房 主 林南溱

危險한海上亂鬪劇 三十餘乘客騷動

些少한感情으로 배를衝突시켜 馬山署에서兩方取調

【馬山】해상안전(海上安全)을선정하는 이중에 일개인인 선장들의 사소한감정으로 고의로배와배사이에 충돌을 일으켜 일시 바다우에서는 승객들이대소동을 일으킨 위험무쌍한 사건이 돌발하얏다 이제 그내용을탐문하건대 지난십이일 오전열한시경에 조선기선주마산지점(朝鮮汽船株馬山取扱店)으로부터 승객삼십여명을 태우고 출범한제일진해환(第一鎭海丸)은 신마산(新馬山)을거처 진해로가는 중도에 마산회조부발동선(貨物運搬船)김영환(金榮丸)이 아무지내가는것을보고 진해환 윤선장(尹船長)은 피해갈길이잇스면서도 고의로충돌을 식혓슴으로 김영환에서도 복수수단으로 배를 부다치게 하는등 일시 해상에서는 배싸홈으로 승객들의 간담을서늘케하엿다는데 다행히 량편다 침몰은 안되엿스나 대소동으로 다수승객의 생명재산을 책임마튼선장들의 란폭한행동에 승객들은 크게분개하엿다고하며 목하 마산서(馬山署)에서도 이급보를접하고 량편을불러 엄중한 처분을 하리라고한다

光州川을爲始 災地復舊起工

【光州】작년의 수해로 인하야 광주부내에 재해가만헛는데부내 주요개소만을 복구하기로 되바 광주천하류와 동정(東町) 소화정(昭和町)등 수리를착수하게되엿다하는데 복구비는 상당한 액에 달한다고한다

例의華陽洞 宋氏所有林野의 虛僞抵當問題

槐山警察署員數人이上京 關係者數人을檢擧

【槐山】충북의명승지인 괴산군청천화양동(槐山郡靑川華陽洞)은송(宋)씨문중의 소유인것은 세인이 주지하는바어니와 화양동림야 삼천여정보를 종손인 송철호(宋喆鎬)씨명의로 송재성(宋在誠)(송철호의삼촌)씨가 대정십이년시월에 경성박용희(朴容羲)씨에게 이만칠천원에 저당하얏든것을 작년도에 박용희씨 차자 박성용(朴性用)씨의소유권등록이되얏다한다 이소문이 세상에 전파되자 송씨문중은물론유림들까지 대분개하야 문제화하얏섯는데 송씨문중에서는 소화십일년칠월에 문중대표 송복헌(宋復憲) 송병항(宋秉恒)량씨가 박용희(朴容羲)박성용(朴性用)송재성(宋在誠)송면호(宋冕浩)사인을상대로사긔문서위조 공문등의로 괴산서에 고소를제긔하엿든바 괴산서에서는 지난 사일에 김(金)사법주임이 오(吳)형사를 대동하고 상경하야 박성용 송재성 송면호등삼인을 검거압래하야 방금취조중이라하며 박용희씨는 행방불명이 되얏슴으로 그행방을 엄탐중이라한다

이에대하야 송철호씨는말하되 나의삼촌이허위저당을 나의명의로하얏다는말을 드럿습니다 그런데 그후드르닉 박용희는 일만팔백원을 대부하얏다고하고 나의삼촌말은 오천원을차용하엿다고하니 이것이 모다 공모협잡임으로 금번 고소를한것이옵시다 압흐로사실이판명될날이잇슬터이나 하여간세인을 대할면목이업습니다운운

山林濫伐嚴禁 期間附伐採許可 燃料問題는考慮

【木浦】근래 무안군 일대의농촌에서는 가옥의 건축과 인구의 증가로 인한 토지개간으로문에 사유림야 벌채(私有林野伐採)가 성행함으로 군삼림계(森林係)에서는 이를 그대로방임하여 두엇다가는 결국 일반의 연료문제(燃料問題)에 중대한 영향이 밋치겟슴으로 미연에방지하기위하야 벌채긔간을엄정하엿다도개간(開墾)을 목적하는 수근채취자(樹根採取者)에 대하야서는 일정한긔간을 지정하지는 아니하나 먼저 토지의 분할측량(分割測量)을 하게 한후라야 개간허가를 하기로 하엿다는바 십이면중 면면벌채기간은 다음과갓다

三鄕 一老 石谷 淸溪 綿城 安慶 望雲 海際 押海는 八月六日부터 八月二十六日까지 荏子 安佐 岩泰 慈恩 飛禽 都草 黑山 長山 荷衣는 九月六日부터 九月二十五日까지로 정하엿든바 이기간내에는 소용에 의하야 얼마든지 벌채를 할수가잇스나 귀한만 지나면 절대허가를하지안코 만약긔간외에 벌채를하는자가 잇스면 엄중처치를 할모양이라고한다

無産夜學을開設 學費까지自擔 李井來氏敎育熱

【寶城】보성군득량면오봉리리정래(李井來)씨는 작년부터 동리부근에잇는 무산아동 오십여명을 소집하야 산술、국어、한글등을 배야두시 각각 무보수로 교수하야왓는데 성적이 매우 량호하야 면민의 칭송을 밧고잇슬뿐아니라 특히 공립보통학교생도(公立普通學校生徒)중에 조선학생 오명의학자를 졸업할때까지 부담하기로 정하고 일명은 작년오월부터 오명은 작년십일월부터 시작하야지금계속중이며 이후에 명중에 성적이 우량한자일명을 선정하야 장래중학교를 졸업할때까지 계속하야 지출할계획이되여 잇슴으로 일반사회의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年末同情金모아 面內貧民에分配

【新市】귀성군사기면(龜城郡沙器面)에서는년말동정대(年末同情袋)를 신시시내에 배부하얏든바 동정금이 오원오십여전이 모집되야 면내각동극빈자에게분배하게하엿다

平北의多年懸案이든 水産試驗場設置

候補地는登串浦說有力

【新義州】긴해안선(海岸線)과풍부한 간사지(干潟地)와 그우에 어장(漁場)까지 가지고잇는 평북의수산(水産)을 조장할긔관인 수산시험장(水産試驗場)이업서서 능히 개척할수잇는 자원(資源)을 가지고도 개척하지를못하고 잇든중 이번 예산편성긔에잇서서 주무과(主務課)인 도산업과에서는 래년도에는 긔어히시험장을 실현시키랴고 예산을요구하기로 결정되엿는데 신설장소는 작년십오만원의 거액을던저 준공한 평북유일의 어항(漁港)인 철산군등곶포(鐵山郡登串浦)가 제일유력한 후보지로 되여잇다고한다

金剛石氏特志

【寶城】보성군보성면보성리 남대전(寶城郡寶城面寶城里 南大田)(假名)、씨는 금년신입일에 돌연병사하엿스나 그의아들형제가 다출타하야잇지 안코 다만며누리한사람이잇스나 적빈한소치로 어지할줄을 몰으고잇슨는차에 보성군수부인김강석(金剛石)씨가 팔일개와 호상의복일습을 제공하야장례를 무사히거행하엿다는데 동부인의특지에 대하야 일반의칭송이만타한다

全道를十一區로區分 各區에視學配置

人員도九名을增員

【光州】전라남도에서는 소화십일년도로서 보통학교일면 일교제가 완성을보게되야 현재의도내공사립초등학교급 부설간이학교등의수는 사백이십팔개소 실습학교십삼개소어민(漁民)훈련소일개소 중등학교십개소를 합하면 초중등학교수 사백오십이교에직원의정 칠백명에달하다 신년도부터 보통학교 일면이교제가실시의 과정에잇게되야 종래의 도시학제도를 일층확대강화시키기위하야 경비약이만 여원을드려현재전임도시학에서두명과신임도시학아홉명 합열한명의시학을열한구로나누어 학구에한명식 주재식히여 초등교육을 철처이지도하리라는바 각구시학은 도학무과에재근하는 시학과련락하리라하며 전라시학이 주재분담할구역별은 다음과갓다한다

分擔區域	視學駐在地	分擔府郡島
▲第一區	光州	光州、光山、和順
▲第二區	長城	潭陽、長城
▲第三區	靈光	咸平、靈光
▲第四區	木浦	木浦、務安、珍島
▲第五區	海南	海南、莞島
▲第六區	羅州	羅州、靈岩
▲第七區	康津	長興、康津
▲第八區	寶城	寶城、高興
▲第九區	順天	順天、麗水、光陽
▲第十區	谷城	谷城、求禮
▲第十一區	濟州	濟州

私立普成學校 校舍新築期成

【楊市】평북룡천군양시(龍川郡楊市) 사립보성학교(私立普成學校)는 당지 예수교장로교회에서 삼십팔년이란 장구한력사를 가지고 경영하여오든바 그동안만흔 파란곡절을 돌파하고 경영하여오다가 지난소화이년경에는 교실이부족하야 지방유지의 긔부금칠천원을어더 교지를확장하고 교실을증축하엿스나 최근에는 또한입학지원자의 수가 날로증가함을보고잇스나 구교실은 전부협착하야 학생수용이여간곤난이안이여서 개축지안이할수업는사정이엿다 그러나 개축비출처가업서서 동교리사회에서는 루차회의를 거듭하여오든중 지난구일에는 사천원의 예산으로 개축하기로 결의하엿다는대 당석에서 설립자대표김영하(金永河)씨는자진하야 금사백원을 긔부하엿다는바 일반은 씨의미거에감사를 마지안는다하며 부족금에대하야는 동교보호자회와 후원회에 교섭하야 엇기로 내정되엿다는바 일반은 특별한 동정이 잇기를바라는동시 또후원회원제위의 이미승락한 후원회비를부로 지불하여 오든것을 이번기회에 일시불하여 주기를 바란다고한다

차저낸"助賁王陵" 發見地는梁山郡上北面大石里

考古學研究上大資料

【大邱】경주고적보존회 촉탁대판금태랑(大坂金太郞)씨조사로써 신라(新羅)의 서씨왕인 조분왕릉(助賁王陵)이 발견되엿다 서씨가보(昔氏家譜)에 의하면 서씨최후의왕인 조분왕릉은 량산군북면(梁山郡北面)에 잇다고하야 오십년전에 서씨자손들이 량산군내를 샅샅치조사하얏든중 어떤사정으로 지방사람들이 방해하기때문에 중지하엿다고한다 그런데 최근에이르러 이사정을듯고 경주고적 보존회촉탁대판씨가 량산에 출장하야 량산군북면(北面)의산과들을 만사흘동안 답사해가지고 고분을 낫낫치조사한결과 상북면대석리(上北面大石里)의석동이라고 그동민이보호하야내려오든 적석식고분(積石式古墳)을 발견하야 조사한결과 판명되엿다한다 그리고 그동리의전설에도 신라석왕릉(新羅昔王陵)이라고 전해왓다고한다

이소문을 드른 그자손들은기뻐하야 현장으로 급행하엿다고한다

全州某富豪家에 短刀를싼脅迫狀

『百五十圓갖고多佳山으로오라』 全州署容疑者를檢擧

【全州】요사히 뜻하지아니한협박문이 전주시내에 날러드럿스니 수일전 전주봉정이정목에잇는 부호최만흥(崔萬興)씨집에는 협박장에다 기리한자가 넘는칼을싸서 문간에 내버린것을주서보아든가

당신의집에 강도의 행위로침입할생각이엇스나 귀하가 너무놀래일것가태서 이협박문을 보내니 오는십일밤 열한시경에현금일백오십원만가지고 다가공원(多佳公園)으로오라는

이상 간단한사유가 써잇슴으로 동가에서는 즉시 경찰에이뜻을알엿든바 당야에 전주서에서는 다가공원부근을 경계하든중 때맛침 부근을배회하든수상자두명을 체포하고 목하엄중한취조를 진행중이나 아직것전후사실에대한 자백이업슴으로 동서에서는 취조의방향을돌려서 민활한활동을 계속하는중 불원간진범인의정체가나타나리라고한다

上下街民陳情刺戟 公設市場側奮起

移轉阻止를決議

【价川】개천읍시민들이 공설시장을 폐지하고 다시 십년전엣날가치 상하가(上下街)에 나누어 이전케하야달라고 평남도당국에 진정하얏다함은 긔보한바 이것을 알게된 공설시장부근일반주민들은 크게 랑패하여 지난십일 오후세시에 당지 태양여관(泰陽旅館)에서 긔급시민대회를열고 백래순(白來淳)씨를의장으로 선출하야 아래와 가치 시장이전 저지(阻止)운동을 개시키로 결의하고 공설시장영구유지(永久維持)회를 조직하엿다한다

一、市場을 狹窄한 街路로移轉하면 交通上 衛生上 莫大한 惡影響이 생길것이매 此를絕對反對함

一、公設市場을 永久存續케함을 要路當局에 陳情키로함

一、陳情委員 李貞成外四人을選出

歲末同情金 一千圓을突破

元山府民의溫情

【元山】작년세말에 원산부에서 실시한세말동정주간에 모혀든동정금은 모다 일천백구원십칠전이엿든데 이것을 원산부에 흐터저 잇는 극빈자 일천삼백팔십사명에게 일일히 분배하얏다한다。그런데 전긔와가리 동정금을 분배하기위하야 원산부에서 조사한 극빈자의 집계를보면극빈자가 제일만히 모혀사는곳이 영정(榮町)으로 사백이십사명이고 다음이 본정오정목(일백십삼명)과 명석동(明石洞)(구십구명) 등이라고한다

産組紛糾尙繼續

【鎭南浦】일천에가까온 조합원들이 조합의 내부를 혁신하려는 목적으로 일치단결하여 혁신성명서를 발포하는등 작년십이월중순이래 분규를 거듭하여오는 진남포산업조합(産業組合)문제는 아직까지 아모해결을보지못하고 길강(吉岡)조합장이사표까지 제출하게됨을 따라조합원중에서는 더욱태도가 강경하여질뿐이라한다 감독관청인 진남포부당국에서 선처하여준다고하여 아직분규그대로 신년을마지하엿는바 소립(小笠)부윤이병석에 잇슴으로 전쾌를 기다려분규내용을 조사하여 선처하리라고함으로 문제는 장차엇더한결과를내일는지 매우 주목되는바라고한다

일흘뻔한"名畵"!

四幅의時價十五萬圓짜리를 팔어준다고소켜가지고가로채서

조흘뻔하다붓자뎌

【釜山】국보(國寶)적가치가잇는일본화가안구의범(岸駒의虎)의세점 시가약십오만원을 사긔한범인이 부산에 잡혀한혼적이 잇다는것을 부산수상경찰서에서하관(下關)경찰서의수로로 알게되자 수일전부터 형사대가 활동을개시하고잇든중 지난십삼일오후한시경 부내초량정(草梁町)에사는 무직 김형권(金炯權)이가 범인인것을 탐지하고 곳그자의집을 습격하야 체포하는동시 그이웃집인 로곽순(盧有順)의집에서 전긔그림네점을 압수하여다가 방금엄중히 취조중이다 현재판명된범죄사실은 전긔김형권은 십여년전에 대분현중진시(大分縣中津市)에사는 원애원현(元愛媛縣)경찰부장인 중리장태랑(中里長太郞)씨의집에서 작년십이월상순에 동경사는 하야철(河野哲)강본송차(岡本松次)등 두명이 전긔그림을 팔고저 도라다닌다는것을 알고 하관(下關)중곡려관(中谷旅館)에 투숙한후 전보로써 전긔두명에게그림을 십오만원에 팔수잇다고 속이여 그달십칠일에 그려관으로 유인해다노코 차일피일하다가 지난십일밤에 려관에 맛겨두엇든 그림들을 몰래차저가지고 그날밤 련락선으로 부산으로 온것이라한다

그런데 그리면에는 복잡한 사연이 숨어잇는듯하야 각방면으로 조사중이라한다

稀有의大竊盜 馬山署에被逮

【馬山】지난십이일 오후 일곱시경에 마산서 사법계 전송촌 조전(田 松村 繁)삼형사가구마산 방면을 순회하지음 만정(萬町)만전양화점(萬全洋靴店)부근에서 거동이 수상한 청년일명을 발견하고 곳인치하야 엄중취조를 거듭한결과 그는경북출생인 전과삼범의 장물이(張不鼠)(二六)으로서 작년팔월부터진주마산 통영(晉州 馬山 統營)등지를 활동무대로삼고 혼자서현금기타 상품절취에 활약을개시하엿다는바 현재자백한 건수만이 삼십여건이라하며 그피해액이 이천오백여원이라는데 경찰에서는 방금 여죄나 업는가하야 엄중취조중이라한다

金組聯合會에서 色衣奬勵運動

【大邱】색복을장려하고저 경북도내금융조합연합회(慶北金融組合聯合會)에서는 구정초를긔회로일반조합원에게 색복을 철저히 장려하기로 작정되여 방금준비공작에 전력중이라한다

일반은 이운동의실현 그수단방법에대하여 주목하고잇다한다

長篇小說 그의自叙傳 【23】

長白山人作 熊超畵

어린적 (一二三)

이모양으로 떼돌아다니기를 일년에 나는 세상 인정의 차고 쓴 맛을 꽤 보앗고 또 세상의 더러운것도 꽤 보앗다。나는 그 동안에 어떤 집 오육에서 얻어자다가 남녀의 관계란것도 목격하고 또 남자들의 부자연한 성욕만족이란것도 구경하엿다。예전에는 나를 꽤 소중히 여기든 사람들도 내가 고아가 된 뒤에는 지지리 천대하는것도 당하엿다。

어떤 겨울날 나는 조부의집을 향하고 오던 길에 선뒷고개라는 고개를 넘어서서 양지쪽 곱작이를 찾아들어가서 눈녹은 자리를 가리어서 바지를 벗어서 이를 잡고, 그리고는 바지로 우둥을가리우고는 저고리를 벗어서 이를 잡고잇엇다。이것은 내가 다른 집으로 갈때마다 하는 버릇이엇다。

『수경이 와 자더니 이가 올맛서』

이런 소리를 아니 듣자는것이엇다。산에 눈이 하얗게 덮엇지마는 양지쪽은 따뜻햇다。

나는 옷에 니를 다 잡아 입고 머리엣 니를 잡느라고 눈우에 록록 머리를 털고 앉엇느라니 웬 보지못하던 사람이 곁에 서 잇는것을 발견하엿다。

그는 이러한 촌스구석 사람갈지는 않게 해사하게 생긴사람이엇다。눈에 별이 잇게 비추어서 그는 눈이 부신 모양이엇다。

『너 남루석이 아니냐』

하고 그는 부드러운 소리로 물엇다。

이것이서병달이엇다。그는이방 동학두령인바대령의 수제자요 또자그도 전여명 교인을 거느린 대접주엿다。동학에서는 사십명 포덕을 한 사람을 해접주(該接主) 삼백명 포덕을 한 사람을 수접주(首接主) 천명을 대접주(大接主) 만명을 의창대령(義昌大領) 오만명을 해명대령(海明大領) 그리고 십만명 도인을 거느린 사람을 수청대령(水淸大領)이라고 하는데 수청대령은 이용구(李容九)한 사람뿐이오, 그우에는 대도주(大道主) 의암손병희(義庵孫秉熙)선생이엇다。이 서병달이란사람은 대접주로서 해명대령 박대령의 수제자인줄은 나중에 알앗다。

이 사람은 나를 자기 집에 불러서 오만년 무극대도니、수운선생、해월선생이니 천도 운선 은행이니 여러가지 처음듣는 말을 하여주고 또 머리도 비겨주고 새 옷도 하여주고 꽤 친절하게해주엇다。그 집은 다 쓸어저가는 오막살이、단간스집이나 방안은 깨끗하고 책도 못 보던것이 여러가지잇엇다。

거진 달포나 두고 나를 시험하고 훈련한 뒤에 서정주는 나를 바대령人집으로 끌고 갓다。그것도 산人골작이에 잇는 아조 초라한 집이지마는 방에 들어가보면 심히 정결하엿다。그리고 대령이란 이는 아주 선비다운, 점잖은, 한 오십된 사람으로 언제나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몸을 단정히 하고 잇엇다。나는 그에게 절을 하엿다。서정주부인이 참빗질을 잘해서 서캐까지 말장하게 훑터서 머리를 꿈탕게 땋고 흰 당기도 옥양목으로 좀 넓죽하게 접어서 들여주고 솜속드리 옥양목 바지저고리 두루마기에 버선까지 기워 신겨주어서 바대령 집에 갈때에는 제법 말쑥한 도련님이엇다。

나는 곧 입도례식을 행하야 『懺悔從前之過願隨一切之善』하야 『布德天下廣濟蒼生保國安民』의 『无極大道大德』을 위하야 일생을 바치기를 하느님께 서약하엿다。

나는 평생처음 이런 엄청나게 큰 소리를 들엇고 또 이런 정성잇고 용기잇고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보앗다。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을 잡기만 하면 죽인다는데 그래도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아니하고 포덕을 하고 기타 활동을 하고 잇엇다。밤이면 동학 두령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모두 순박하고 점잖고 겸손하엿다。나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하고 보고 잇엇다。

내가 이 집에서 하는 일은 서울서 오는 글人발을 벗겨서 각포(포란는것은 한 두령이 거느린 도인의 단체엿다)에 보내는 일이엇다。이를테면 중앙정부에서온 지령을 도에서 말아서 각군에 전달하는 심이다。그럼으로 내 직분은 좋게 말하면 대형의 비서요 나뿌게 말하면 서기엿다。

나보다 먼저 이 집에 와서 그런 일을 하고잇는 아이가하나 잇엇는데 그는 운현이라는 아이로 나보다 사오년이나 우아이어서 큰 총각이엇다。키는 작고 낮바닥은 방패와 같이 생겨서 얼굴이 길다라코 웅용해 보이는 아이엇다。이 애가 장차 내 경쟁자가 될 아이엇다。

醫學博士 金東益內科醫院 ―內科・X光線科― 入院室獨房 温水暖房 京城府鍾路二丁目(パコタ公園正門越便) 電話光⑤二七五三番

耳 人工鼓膜 귀질알는사람은念慮無用 ... 大阪市北區堂島上四ノ四 サンセイ商會

小兒內科 趙漢英醫院

副業또本業에 千代田商店 大阪市西區本田通一 電話西七三九八番

石堀農機製作所 大阪西淀川區浦江中二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年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圓

補藥 陰萎、早漏에神效! 不足症、肺病에곳낫는다! 一劑十圓、試用分五圓 濟世堂藥房 京城府長沙町一四六 振替京城二二九九番

科學의偉力 溫治灸療器 世界的發明 本器는五大博士의推奬과全國博覽會의賞狀受領이 有한金屬製完全品으로永久使用하는것이니 物理治療法研究所 京城笠井町貳貳

登錄商標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一一五九

京城府市計劃地圖 定價2.00 東亞商會 京城公平町六二

恩給 五年分以上低利立替 金星商會 京城府中學町一四

高級治淋藥 ゴノチリン 淋病の御相談は 京城新藥社 包裝定價 二圓 四圓

確ナ藥効 川病 研究により多年の 各種類へ揃ひました

凍傷にアスター

光州 農業實習學校生徒募集 定員二十名 資格十八歲至廿五歲男子普校卒業程度 期日一月二十日까지 全南光州府白雲町

軍手 이는자리업는軍手의製造家募集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八十四番地 常盤商會支店으로照會또는乞來談 東京市神田區五軒町九の一 常盤商會本店

近代氣質에꼭맛는 ラランチンヅ

樺太廳官營 海狗腎 新品到着 老少를勿論하시고陽氣업서 恨歎하시는분이여! 貴下를爲하야 補精腎氣强壯에 神奇神秘한天惠的靈効를가진 樺太廳官營捕獲眞品海狗腎이 到着하얏습니다 明治四十四年日、英、米、露四個國의條約에基한全世界에唯一한元素! 堂堂한實彈的眞品! 百發百中은이를두고하는말 朝鮮釜山輸入販賣元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全朝鮮耕地調査 ② 賣買價格과 收益

百坪當平均價格 中等 〔畓五十三圓(十圓高) 田은十八圓(三圓高)〕

▲年度別全朝鮮平均賣買價格

年度	畓(百坪當) 上	中	下	田(百坪當) 上	中	下
昭和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年과의增減比較 實數	十五	十〇	十七	十五	十三	十二
割合	三三・一%	三三・七%	三五・七%	三一・一%	三四・八%	三五・二%

備考=前年과의增減比較는 計算은錢位까지行하얏스나 實數는圓位以下四捨五入이다。

二、賣買價格
가、槪要

畓田의 賣買價格은 本調査를 開始한 昭和三年以來昭和六年에 至하기까지 落調를 持續하얏스나 七年及八年은 保合情勢를 示하고 其後各品等共히 騰勢로 轉하얏스며 特히 本年度에잇서는 前年度에 比하야 更히 大幅의 騰貴를 示하얏다 即中等畓田에 就하야보면 百坪當全朝鮮平均價格은 畓五十三圓、田十八圓으로서 前年度에 比較하야 畓은 十圓(二割二分七厘) 田은 三圓(二割四分八厘)의 騰貴이엇고 其他品等도 大略類似하얏다。

如斯하야 本年度의畓、田의賣買價格이 全朝鮮的으로 昂騰한 것은 主로서 米其他의 農産物價格이 近年漸次高價를 維持한것과 低金利의 普遍化에 伴하야 從來不動産投資가 旺盛하던 朝鮮에잇서는 更히 拍車를 加한것等에 因한것이라하겟고 各地의 鑛工業 漁業의 勃興과 其他一般經濟界好況의 影響을 享하야 土地購買力의 增加를 來한것과 滿洲國의 發展에 伴하야 其接續地인 朝鮮이 安全한 投資地로서 認識되기에 至한것等도 亦重要한 一原因이라하겟다。

(나)地方別狀況

地方別價格은 一般으로 畓과 田이 共히 上과 如한 原因으로 昂騰되어잇다하나 地方에 依하야 顯著한 差가 잇는바 其狀況을보면 左表와 갓다

即本年度의 中等畓의 賣買價格은 中部朝鮮地方이 最高로 百坪當五十九圓을 示하고 南部朝鮮地方이 그다음으로서 모다 全朝鮮平均價格五十三圓以上이며 其他의 地域은 平均價格以下로서 最低는 北部朝鮮地方의 四十二圓이다 또 中等田에 잇서서는 前者同樣 中部朝鮮地方이 最高, 南部朝鮮地方이 그다음으로 最低價는 北部朝鮮地方의 十七圓이다。殖銀支店所在地方別價格은 各品等에 亘하야 最高價는 南部朝鮮地方의 沙里院各支店所在地方의 田은仁川、京城各支店所在地方이 最高로하고 最低는北部朝鮮地方의 雄基支店所在地方과 宣川、江界、鐵原各支店所在地方을 最低로한다

中等畓田地方別比較

地方	畓 百坪當價格	順位	田 百坪當價格	順位
南部朝鮮	[illegible]	二	[illegible]	二
中部朝鮮	[illegible]	一	[illegible]	一
西部朝鮮	[illegible]	三	[illegible]	三
北部朝鮮	[illegible]	五	[illegible]	五
平均	[illegible]		[illegible]	

品等別畓田最高最低賣買價格

地目	品等	最高		最低	
畓	上	沙里院	[illegible]	雄基	[illegible]
	中	沙里院	[illegible]	雄基	[illegible]
	下	仁川	[illegible]	雄基	[illegible]
田	上	仁川	[illegible]	雄基	[illegible]
	中	京城	[illegible]	宣川 江界	[illegible]
	下	京城	[illegible]	鐵原	[illegible]

前月今日과比較 驚異的高物價
軍擴競爭에依한世界的傾向에 爲替管理强化가動機

世界各國의 軍備擴張競爭에 軍需資材를 膨脹케하고 신흥레景氣出現의有力한 促進材料가 되어 鐵材、銅、鉛等의 金屬品을 비롯하여 國際商品의活況이 顯著하야 物價高는 世界的傾向인데다가 日本으로서는 三十億圓을突破하는 膨大豫算은 그만큼 國家의 購買力을 急增케하고 民間生産力이 이에不伴하면 關係商品의 騰貴를 刺戟하리라하야 圓價不安과相俟하야 商品先高가 豫想되는판에 爲替管理法强化에 依한 輸入許可制採用이 도리어 重要商品의 暴騰을招來하야 最近綿絲 人絹 生絲 砂糖 鐵材銅等이 爆發되고 株高와相俟하야 投機的 假需要까지加하야 他商品에도 影響되고 續續値上이發展되는等으로 一般的物價急騰이 國民生活에多大한 脅威를 與코잇는바 이제 昨年十二月十四日前止와 今十四日前止를 比較하면 如左하야 한달 동안에 生絲百三十一圓高 綿絲四十七圓高 人絹二十六圓四十錢高等驚異的暴騰이며 이騰勢가 얼마나더 繼續될지 注目되는터이다。

先限	一月十四日前止	十二月十四日前止	比較
大阪綿絲	三三〇圓〇〇	二八三、〇〇	四七、〇〇高
同 綿花	七〇圓五〇	六三、一〇	七、四〇高
同 人絹	九四圓〇〇	六七、六〇	二六、四〇高
橫濱生絲	九四〇圓〇〇	八〇九、〇〇	一三一、〇〇高
大阪砂糖	二三圓五〇	[illegible]	[illegible]
仁川期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物價躍騰
昨年十二月의指數 昭和五年初以來高價

朝鮮銀行 調査課調査=昨年十二月中의 京城物價指數는 一九七、一三으로서 前月에 比較하야 一氣로 二分八厘一毛의 大幅飛躍이오 이것을 再昨年末에比較하면 一割四分一厘五毛高로 物價의地位는 一個年에 其價位를 一變하얏슬뿐아니라 昨年十二月의指數는 昭和五年一月의 一九九、二七以來의 記錄的 高價이다。그런데 新年에 入하여서도 驚異的爆騰을 示하얏슴으로 今月의 指數는 어떠케될지? 이제 十二月指數를 前月指數에 比較하야보면 騰貴十五品、低落六品 保合九品으로 騰落品目은 如左하다

▲騰貴品=小麥 大豆 小豆 粟 和金巾 綿絲 綿絹 石油 石炭 小麥粉 砂糖 硫安 金物 洋紙 燐寸

▲低落品=玄米 精米 大麥 三八紬 再製鹽 豆粕

▲保合品=生絲 木炭 松薪 醬油 日本酒 麥酒 木材 頭子 牛皮

京、濱以外는 米移出不振

朝鮮米의 日本內地移出은 各港이모다 依然不振하야 例年에업든現象을 示코잇는데 最近 鎭南浦、仁川、群山積京濱陽揚의 朝鮮米積荷가 漸增하야 西朝鮮京濱線은 各社共히 船腹滿船狀態이다 이에反하야 阪神陸揚移出은 全혀不振하야 日本內地로부터의 移入雜貨의 停頓과共히 各船往復共히 空腹인것이 만허 例年갓흐면 船腹不足이던 이때 今年은朝鮮米輸送이 閑散하다한다

米移出不振原因
인풀레景氣物價關係

新米穀年度에 들어가 十二月一月에 米移出이 激減하기는 今年과가튼例가업다 昨年에도 二月부터 三、四月中은 移出이減하엿는異例가 잇지만은 一月末까지의 累計로는 三百五十五萬石으로 前年同期의 三百四十萬石에比하여 多少만흔便이엿다 그러나今年은 一月上旬까지 二百二十二萬餘石으로 昨年同期에比하여 七十五萬石이나 減하엿다 그理由는 一般物價며 株式의昂騰에딸아 米價도追從하야 産地의大農들의 賣惜의氣運이 甚한까닭임은 누구나 짐작하는바이나 그裏面事情이라고할바는 朝鮮의凶作關係도 크거니와 米穀自治의 事情으로는 日本內地가 豐作이라고는 하나 虫害等으로 秋收의結果는 豫想보다 못한關係도잇다 그러고 米價는 朝鮮米의 移出如何로 決定되는것인데 近者 朝鮮은 小農들은 秋收直後放賣하여지만은 大農들로 貯藏하야 農倉의百萬石收容力은 거이飽滿狀態에잇서 大量移出이 업는關係가크다 그런데 그보다도 米價가 昨今가티 昂騰한關係는 米穀自治의 關係보다도 周圍의 一般財政經濟의影響이 더큰것이 事實로 從來의 例로는 米價는 三月頃부터 올으기始作하는것이 今年은 十二月부터 昂騰하엿다 이事實도 特例인데 諸物價高의 趨勢에比하야 米價其他農産物價가 三、四個月뒤떠러지는것이 今年은 秋收初부터 緊張한것은 인풀레의 本格的 豫算에딸은 新年의膨大한 物價의 騰勢의 基底가되는것이아닌가하는 觀測이有力하다

爲替管理强化로 特産輸入에支障

爲替管理의 强化策으로서大藏省令에依한 新令이 公布되고 總督府에서도十二日付로이에 呼應한 新法令을 實施하엿는바 右法令의 施行은對滿貿易 就中 特産輸入上에 重大한 支障을 生하게되어 朝鮮內特産商關係에서는 法令을 熟知치못하야 從前의 取引을 繼續하는者가만흔데 其決濟에當하야서는 違法이되어 分明하야 그形勢가 極히 重視된다 即 新令에 依하면 輸入의事前에 許可를 要하게되엿는데 實際問題로서 特産取引과 如한 敏活을 要하는것으로는 許可를 得하는데 一個月餘를 要하면 商機를 逸하게되어 實的脅威를 生케된다。三井物産 京城支店과如한 關係商品全般에 亘하야 許可申請을 急히하고잇는데 이影響은 深刻하다고 豫想된다한다。

朝滿取引에는 便法講究必要

爲替管理의 新法令은 對外貿易全般에 亘하야 强固한 統制를 徹底케하고 對滿取引도 其經濟圈內에 包含되는바 滿洲國取引은 其他 諸外國取引과 相異한 點이 잇고 또 朝滿一如가 提唱되는이때 對滿取引만은 特殊化하야 便法을 講究하자는 輿論이 니러난다 對滿取引은 國建取引이오 朝鮮滿洲間은 이미 經濟一元化의 機運에잇는데 그取引을 一個로 其許可를 要함은 取引力을 減殺하고 小口取引이만흔 朝鮮에 特히 큰負擔이니 當然히 朝鮮商議方面에서도 問題化할일이라고 重大問題視한다

商品投機仕入 朝鮮에는업다

最近의 各金融機關의 商品擔保의 狀況을보면 一般으로物價高에 依하야 價格騰貴에依한若干의 膨脹은잇스나 先高豫想에依한 思惑的商品仕入으로볼것은 殆無한터로 京城中心으로서는 商品投機가아직업다한다

▲金融懇談會

【東京電話同盟】日本銀行主催本年度金融懇談會는 十四日正午부터 同行樓上에서 開催、午餐을 가리하고 深井日銀總裁로부터 昨年末以來의 金融情勢에 對하야 說明한後 昨年末의預金資金의放出과 去八日부터實施한 爲替管理에 關한 大藏省令等을 中心으로 最近金融界의重要問題에對하야 懇談하고午後三時散會하얏다

硫安輸送契約

硫安販賣會社에서는 硫安輸送에 關하야 鐵道局과 協議中이든바 如左히 輸送契約이 決定되엇다

▲一、二月四萬噸 ▲三月四萬八千噸 ▲五、六月四萬噸

東拓所有耕地 洑、堰堤改善

水利不安全畓의 水利安全化는 總督府에서 旱害根本對策으로서 着手키로 되엿는데 東拓에서도 이와呼應하야 洑、堰堤의改良、小規模土改事業等에 積極的으로 注力키로되엇다 東拓所有耕地에는 全然의 天水畓、即水利安全畓에 改善할 可望이업는것이 極히적고 거의 洑、堰堤、小貯水池로 水利安全畓으로 化할狀況이다 目下 同社農業課에서는 關係技術者를 各地에 派遣하야 施業計劃을 進코잇다

金組大膨脹
貸出一億、預金一億五千萬 組合員百四十八萬人

農民의金融機關인 金融組合은逐年增加하야 昨年十一月末現在의組合數는 七百一組合、支所二百四個所、組合員數는 百四十八萬四千八百六人으로 前年十一月末現在에比較하면 組合數六、支所數十、組合員數는 實로十八萬五千百七十六人의 增加를示하얏다 이것을業績으로보면 十一月末現在의貸出金額은 一億一千三十六萬二千圓、預金額一億五千二百六十七萬三千圓으로 前年에比하야 貸出三千八百二十九萬二千圓、預金一千百三十萬六千圓의膨脹이엇다

商銀下期決算

商銀에서는 十三日午後一時부터 重役會를 開催하고當期決算及利益金處分案을 附議하얏는데 處分案은 配當据置(三分)로 如左하다

當期純益金	一六九、七〇五圓
前期繰越	三二、五〇七
合計	二〇二、二一二

이것의 處分은如左하다

法定積立金	二〇、〇〇〇
別途積立	六五、〇〇〇
配當平均積立	三、〇〇〇
退職基金	五、〇〇〇
配當(年三分)	七二、六一五
重役賞與	四、〇〇〇
後期繰越	三二、五九七

石炭消費 三百十五萬噸

總督府鑛山課에 調査에依하면 昭和十一年中(十二月分消費推定)의朝鮮內石炭消費量은 三百十五萬噸으로 前年의 消費量二百七十一萬噸에比較하야 四十四萬噸의增加이다 其中朝鮮內의 産炭高는 二百十一萬噸으로 前年의産炭高에 比較하면 二十一萬噸增加로서 朝鮮鑛山界의 躍進을 示하얏는바 需給狀況을 前年과 比較하면 如左하다。

(單位萬噸)	十一年	十年
産炭高	二一一	[illegible]
有煙炭	[illegible]	[illegible]
無煙炭	[illegible]	[illegible]
輸入高	[illegible]	[illegible]
移入高	[illegible]	[illegible]
供給合計	[illegible]	[illegible]
輸出高	[illegible]	[illegible]
移出高	[illegible]	[illegible]
(主로關東州)		
消費高	三一五	[illegible]

經濟界消息

○朝郵二船起工=朝鮮郵船新造船 二隻中 一隻은 一月十八日橫濱船渠에서 五千百噸一隻은同月二十五日에 起工式을 擧行키로되엿다고

○三好化學工業株式會社移轉=[illegible]町에서 [illegible]町一〇一番地로 十一日에 移轉하얏다고

○市內 四普通銀行의 下期決算을보면

○當期純益金이 商銀十六萬九千圓、漢銀六萬二千圓、東銀七萬圓、海銀二萬二千圓

○別途積立金은 商銀六萬五千圓、漢銀萬圓、東銀萬二千圓、海銀三千圓

○重役賞與金은 商銀四千圓、漢銀五千圓、東銀三千五百圓、海銀無

◇이數字로보아 商銀의方針이 너무나 堅實타고 一部서는 增配希望이不無

株式 朝取新舊 飛火

今日의市勢(十四日)

前場朝取高 昨後場 反撥에 止揚된 市勢는 今朝에도 繼續하야 東新은 五十錢高로 寄付하야 百六十圓八十錢 大新九十錢高인 九十九圓七十錢 鐘新은 九十錢高인 二百二十七圓 日産一圓高인 八十二圓四十錢 朝新三十五圓九十錢等이엇는데 東新도 高價는維持되지안코 六十一圓丁을 高價로 五十九圓臺로 少弛되고 其他大新、鐘新、日産等도 反弛하엿는데 朝取新舊는 依然買氣가 加하야 朝取는 八十八圓丁、朝新三十七圓九十錢의高價에로 奔騰하엿다。이리하야 結局東新百五十九圓五十錢 大新九十八圓三十錢 鐘新二百二十六圓九十錢 日産八十一圓九十錢에 小弛하고 朝取八十六圓五十錢 朝新은 八十六圓四十錢으로 頑强히 大引되엇다

後場保合

後場은 東新百六十圓十錢 大新九十八圓八十錢 日産八十二圓八十錢 朝新三十六圓七十錢等에 寄付하야 保合裡에推移되엇다

朝取新舊急騰

諸株爆發도모르는체 朝取新舊가 [illegible]

雜株氣配鈍狀

商事新은 依然頑强하야 二十錢高인 三三、一이며、帝國火藥도 時節이時節이라 六十錢高로 一九、三이엇는데 北樺太油는 八十錢인 四八、二 同新五十錢高인 四二、八이나 日本紡은 五十錢低인 一〇五、八 帝國製麻도 三十錢低인 七一、五 同新五十錢低인 二八、五이엇스며 에라파이新은 依然堅調로 三十錢高인 一四、八이며 라사工業은 一圓五十錢高인 一一三、〇이나 同新은 五十錢低인 六五、八이엇고 日滿아루미는 七十錢低인 五六、八 同新八十錢低인 二七、七로 不勢이엇다

短期配當落一束

朝取短期建株中 左의諸株는 賣買記日字로부터 配當落으로 [illegible]

市場寸感

株……諸株가 머뭇머뭇하니 이제는朝取、朝新에 飛火하야 急騰場面을演出◀다가튼 取引所株인데 朝取만은 못오르란法도업지만◀從來의 例로보면 朝取朝新이 飛火하는때는 大槪 騰勢의 一段落이되는때이엇스니◀그러면 騰勢는 이로써 一段落?◀알수는업는일이로되 世上事반듯이 一律的으로 規測으로만 進行되는것은아니니 이것은 餘談으로듯고 大勢를觀望하자…

米……三十圓大臺는 畢竟 破하고말엇다 此에는 値頃觀의 賣物도 업지안흘모양갓고 又는 買方의 利喰도 不無하야 三十圓〇八錢에서 十六丁의 反落인 九圓九十二錢으로 前場을 마치엇다◀此의 高價는 天井인것도가트나 아직도 餘勢는 高價를 남겨노앗다하여도 過言이 아닐듯◀每斤八錢四、五厘의 正租를 가지고 玄米一石을 製造하면 그價格은 三十圓一、三十錢가령◀그러면 早晩當限에 三十圓二、三十錢의 高價를 演出하고야말것이며 딸아서 當米化하는 當限도 一段 高價를 示하고야 말것이다 果如何?

商勢大體頑强

昨後場反撥하엿든 市勢도 今朝에는 다시 高價가 繼續되지못하고 東新은 百五十九圓臺、大新은 一百十六圓臺等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國債 處分賣로 不勢

▲東京【東京電話同盟】當限의 場面으로 無活氣商狀이나 二回四分은 處分賣物을 [illegible]

▲大阪 (Quotations not transcribed.)

農家의目標點 三十圓以上?

[illegible]

期米 卅圓關門 突破

前場續騰 昨後場阪地 [illegible]

正米 人氣强硬 昂騰

京城上放

仁川昂高

釜山强調

買氣再燃之勢 環境의良好로

後場保合

大邱不變

群山頑强

木浦反撥

光皿 株 米 仁川 康益商店 金益證券株式會社

期米東 趙俊鎬取引店 仁川府海岸町二丁目 電話 二六五 三九